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
NATIONAL COUNCIL OF HOMEMAKERS' CLASSES

본회는
주부의 사회성을
개발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주부에게 부하된 사명과
역할을 체득 실천함에
있어 주부중심,
지역중심의 조직 및
활동전개로 새 주부상을
정립해 나간다.



월간 주부교실 2월호

발행일 : 2008. 2. 20

등록일 : 1972. 8. 31

등록번호 : 라-1616호

✱발행 : 사단법인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발행인 : 이윤자
편집인 : 김태련
주 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전 화 : 2265-3627, 3628, 0637
2266-5870, 2273-6300, 2485
F A X : 2279-9341
<http://www.nchc.or.kr>

✱인쇄 : (주)헤럴드미디어
대표홍정욱

비매품

주부교실

2008
통권 제395호 2

생각해봅시다	4	시간제 엄마와 전일제 엄마의 화해 / 함인희
가격조사	6	선물세트가격, 단품가격보다 최고 2배 비싸
의식조사	8	산후조리원 이용자 80%이상, '이용료 비싸고, 서비스는 부족'
고발사례	10	소비자의 소리 / 곽정자
소비자정보	12	바뀐 「양곡표시제도」, '맛있는 쌀' 구분 가능해져
소비자경보	14	'연료절감기' 무료장착 상술 조심하세요
소비자지식	16	해외구매대행 사이버몰, A/S 어렵고 반품 수수료까지 부가
알아봅시다	18	윤리적 소비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소비문화	20	올해 유행할 신(新) '소비 트렌드'
소비자뉴스	22	새 가구 한 달 지나도 유해물질 방출량 30%밖에 안 돼
식품뉴스	24	검정콩 차가 콩 차(茶) 중에서 영양 최고
건강뉴스	26	보톡스 안전성에 '적색경보' 발령
공트	28	수요일 / 노순자
금융정보	30	신용카드 서비스의 '허와 실'
생활정보	32	겨울용품, 제품 특성에 맞게 보관해야
음식이야기	34	보약이 되는 한방차
이달의 요리	36	색다른 별미 '김치 퓨전요리'
알뜰정보	38	생활 속 재활용 아이디어
여행정보	39	선조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곳
문학산책	40	이달의 읽을 만한 책
지부소식	41	전국 16개 시·도 지부 및 232개 시·군·구 지회 소식
주부교실게시판	50	등산반 시산제 개최 및 주부대학 신입생 모집

〈표지사진 : 등산반 제21차 정기총회(중앙회, 08. 2. 12), 원산지 표시 캠페인(부산광역시 지부, 08. 1. 24)〉



시간제 엄마와 전일제 엄마의 화해

함인희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여성

에겐 취업이 문제요, 남성에게 실업이 문제”임은 맞별이 부부의 비율이 70%를 넘는다는 통계가 무색할 만큼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듯하다. “엄마가 직장 다니는 애 하곤 어울리지 말라”는 충고가 공공연히 떠다니니 말이다.

여성의 취업 곡선은 연령에 따라 M자형을 그린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에 들어가는 시기가 되면 여성의 취업 곡선은 예외 없이 하향추세를 보이다가, 자녀가 만 5살이 넘으면 취업 곡선이 다소의 상승세를 띄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이 M자형 굴곡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건만, 오히려 우리나라에선 자녀교육으로 인해 직장을 포기하고 마는 “전일제 엄마”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니, 이게 웬일인가? 이야길 들어보니 아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녀 숙제=엄마 숙제”가 되면서 엄마 손이 더욱 필요하게 되고, 더욱더 엄마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는 자녀들이 따돌림을 당하게 되기에, 시간제 엄마를 포기하고 전일제 엄마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혹 이 대목에서 일하는 엄마와 전일제 엄마의 갈등에 주목하면서 역시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단정한다면, 이는 “피해자 비난(blaming the victim)”의 오류에 빠지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시간제 엄마와 전일제 엄마가 갈등하는 기저에는 엄마 자신들로선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교육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네 초등교육 시스템은 하루 종일 집에서 자녀를 위해 봉사하는 엄마가 있음을 전제로 짜여 있는 듯하다. 과제만 해도 아이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태반인데다, 학교 급식당번이니 등굣길 교통정리니 해서 엄마의 자원봉사를 학교생활

에 유기적으로 통합시키고 있다. 물론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우리네 엄마들이 마다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문제는 일하는 엄마가 전일제 엄마를 압도하고 있음에도 전일제 엄마를 기준으로 엄마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아니겠는가? 엄마들에게 요구하는 자녀를 향한 책임과 의무가 그토록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라면, 엄마 아빠가 함께 나누어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하리라.

한데 문제는 그리 간단치만은 않은 것 같다.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하에서 전일제 엄마의 입시 전략 정보력은 그 어느 때보다 위력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네 가족문화의 맥락을 고려할 때 자녀의 명문대 진학으로 상징되는 성공과 출세는 엄마에겐 자신의 인생을 걸고 투자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자본”임이 분명하다.

그런 전일제 엄마 눈에 시간제 엄마는 치열한 입시전쟁에서 자기 주머니를 우선적으로 챙기는 이기적 엄마로 보이거나, 아니면 노력도 하지 않고 결실만 챙기려는 무임승차자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세계제일의 교육열을 자랑한다면서도, 정작 교육 철학도 교육 가치도 부재한 우리의 척박한 교육환경이 문제인 게다.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잘 키울 것인지, 우리

아이의 행복은 진정 가능할 것인지 등의 질문에 대해 진지한 답을 찾아 나서기보다 어떻게 하면 대치동 엄마를 따라잡을 것인가, 누가 족집게 과외선생인가, 어떻게 하면 일류대에 합격시킬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인 상황에서 건강한 모성과 건전한 부성을 이야기하는 건 현실을 무시한 나이브함(느슨함)의 소치일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엄마와 자녀관계의 만족도는 엄마 스스로 자신의 삶에 만족할 때, 더불어 엄마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을 기억하자. 나아가 자녀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엄마의 취업 여부 자체가 아니라, 누군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는 이가 있느냐 여부요, 엄마와 아빠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민주적 관계를 유지해갈 때 자녀 또한 평화롭고 안정적인 인성을 구축해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다.

정말 아이 키우기 무서워 아이 못 낳겠다는 “출산파업” 시대에, 한편으론 시간제 엄마와 전일제 엄마의 화해 협력 노력을, 다른 한편으론 시간제 아빠들과의 현명한 공조체제 구축을 적극 시도해볼 것을 제안해 본다. ■

선물세트가격, 단품가격보다 최고 2배 비싸

명절 선물로 어떤 것을 고를지 쉽게 결정하지 못할 때 뭔가 풍성한 느낌을 주는 선물세트식 상품은 소비심리를 자극하기 충분하다. 그러나 상품 구성의 주도권이 판매자에게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가격대비 품질에 대한 정보 및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본회는 1월 23일~24일 서울시내 25개구 백화점(20곳), 할인마트(20곳) 총 40곳을 대상으로 763개의 설 선물세트가격과 선물세트를 이루고 있는 단품가격 비교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관련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합리적 소비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다음의 '설 선물세트 가격조사' 내용의 일부 요약한 것이다.

◆ 품목별 가격 비교

'배 세트' 89.4%로 가격차 가장 심해

조사대상 품목별 가격(표1 참조)을 살펴보면 최고가와 최저가의 가격차이가 가장 심한 품목은 배 세트(7.5kg) 125,100원(89.4%) 가격차이가 났고, 사과 세트(5kg)이 115,000원(88.5%) 가격차이가 났고, 동원 F&B 리챔 2호로 38,000원(63.3%), 오투기포도씨유혼합2호는 10,700원(40.5%), CJ웰빙고급유2호는 8,000원(33.5%)순으로 나타났다.

◆ 업체별 평균가 비교

백화점이 비싸고, 최고 83.8% 가격차

업체별 평균가(표2 참조)를 살펴보면 동원 F&B 리챔2호의 최고평균가(백화점) 46,571원, 최저평균가(할인마트) 25,333원으로 가격차이

가 83.8%로 조사되었다.

CJ웰빙고급유1호의 경우 최고평균가(백화점)가 최저평균가(할인마트)에 비해 13.3% 비싼 것으로 나타났고, CJ웰빙고급유2호의 경우 최고평균가(백화점)가 최저평균가(할인마트)에 비해 10.5% 비싼 것으로 나타나 업체별로 많게는 83.8%에서 적게는 0.5% 최고평균가와 최저평균가의 가격차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선물세트가격과 단품가격 비교

선물세트 비싸고, 단품가격보다 최고 2배 높아

선물세트가격과 단품가격을 조사 비교해 본 결과, 단품가격보다 선물세트가 더 비싼 곳이 7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품가격이 비싼 곳 50곳, 동일한 곳은 5곳이었다.

조사대상 품목 중 동원F&B 리챔2호가 신세계백화점(강남)에서 세트가격이 단품가격보다

100%로 2배 비쌌으며, 오투기참기름8호가 롯데백화점(미아)에서 세트가격과 단품가격의 차이가 68.2%, CJ웰빙고급유2호의 세트가격과 단품가격이 롯데마트(월드점)에서 61.1% 순으로 나타났다.

◆ 결 론

이번에 실시한 가격조사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설 선물세트가격과 선물세트를 이루고 있는 단품가격에 대한 비교라는 점에서 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단품자체가 없거나 다양한 선물세트

구성으로 비교 조사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선물세트가격과 단품가격을 조사 비교해 본 결과 동일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대부분 선물세트 가격이 비쌌으며 단품가격보다 최고 2배 비싼 품목이 있었다.

특히, 농수축산물의 경우 굴비 세트가 최고가인 2백만원으로 판매되고 있어 설 명절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준비하는 선물이 과소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우려돼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태도가 필요했다.

(최애연 / 본회 소비자보호국 부장)

〈표1〉 품목별 최고가와 최저가 비교표

품 목	평균가	최고가	최고가업체	최저가	최저가업체	가격차	평균가 비교율(%)
배 세트(7.5KG)	47,463	140,000	현대(무역점)	14,900	세이브존(노원)	125,100	89.4
사과 세트(5KG)	52,500	130,000	신세계(본점)	15,000	하나로마트(강서)	115,000	88.5
오투기포도씨유 혼합2호	19,820	26,400	그랜드마트(신촌)	15,700	이천일아울렛(중계), 홈에버(면목)	10,700	40.5
CJ웰빙고급유 2호	17,560	23,900	롯데마트(월드점)	15,900	롯데마트(영등포, 중계), 이마트(천호)	8,000	33.5

〈표2〉 세트가격과 단품가격의 비교

세트명	조사업체	세트가격	단품가격	가격차	비율(%)
동원F&B 리챔2호	신세계(강남)	60,000	30,000	30,000	100.0
오투기 참기름 8호	롯데(미아)	27,200	16,170	11,030	68.2
CJ웰빙고급유 2호	롯데마트(월드점)	23,900	14,833	9,067	61.1
CJ 스팸 3호	홈에버(목동)	39,900	27,120	12,780	47.1
CJ진한참기름 특호	그랜드마트(신촌)	25,300	18,000	7,300	40.6
오투기 참기름 S호	이마트(창동)	12,600	10,000	2,600	26.0
CJ 진한 참기름 2호	하나로클럽(양재)	17,950	15,700	2,250	14.3
동원F&B 53호	하나로클럽(양재)	27,000	23,864	3,136	13.1
오투기 참치 3호	현대(신촌)	21,900	19,854	2,046	10.3
청정원 하이포크 팜2호	그랜드마트(신촌)	30,900	28,588	2,312	8.1
오투기 포도씨유 혼합3호	롯데(미아)	21,400	19,950	1,450	7.3
CJ웰빙고급유 1호	삼성홈플러스(동대문)	27,500	25,760	1,740	6.8
CJ올리브 1호	애경	33,000	31,500	1,500	4.8

산후조리원 이용자 80%이상 “이용료 비싸고, 서비스는 부족”

— 대전지역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및 소비자 300여명 대상 —

지난 1월 모방송사의 '산후조리원의 천태만상' 고발 프로그램을 보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던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용하고자 했던 소비자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이에 지난해 대전광역시지부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던 산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후조리원 이용 소비자 의식조사 및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산후조리원의 안전권 확보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다음은 '산후조리원 이용 소비자 의식조사'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응답자 65.3% '신생아와 산모 관리의 전문성' 고려해 선택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이유로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가 46.7%로 가장 많았다.

선택 경로에 대해선 응답자 51.2%가 '이용경험이 있는 주위사람의 권유에 의해 선택'하고 있었고, 28.8%는 '산부인과 병원의 권유에 의해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후조리원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65.3%가 '신생아와 산모 관리의 전문성 및 숙련도'로 우선으로 꼽았고, 20%는 '산후조리원의 위생' 순으로 조사되었다.

■ 응답자 81.7% 이상 '비용 산출 근거 및 프로그램 미흡한데 이용료는 비싸다'

산후조리 이용만족도 조사결과, 2주 동안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응답자가 67.7%로 가장 많았고, 20.4%는 3주, 8.8%는 4주 이상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다.

산후조리원 이용료로 46.7%가 140만원에서 179만원을 지불해서 이용했고, 6.0%는 180만원 이상을 지불하였는데 응답자의 81.7%가 '이용요금이 비싸거나 매우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확인하니 43.8%가 '비용대비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으며, 39.5%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는데 비해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마사지 등 추가서비스를 받을 경우 별도비용을 지불해야 가능했다고 답했다.

■ 응답자 60.6% '비용 부담 및 문제점'으로 계약 해제, 환불 어려워

산후조리원 계약 후 11.6%가 취소경험이 있었고, 그 중 60.6%가 비용부담과 산후조리원 문제점에 대한 언론보도를 듣고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계약 후 이용 전에 취소한 경우 30.3%가 과다한 위약금을 공제 후 환불 받았으며 21.2%는 지불한 금액 전액을 환불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 24.2%는 환불규정에 대한 설명없이 산후조리원측이 주는 대로 환급 받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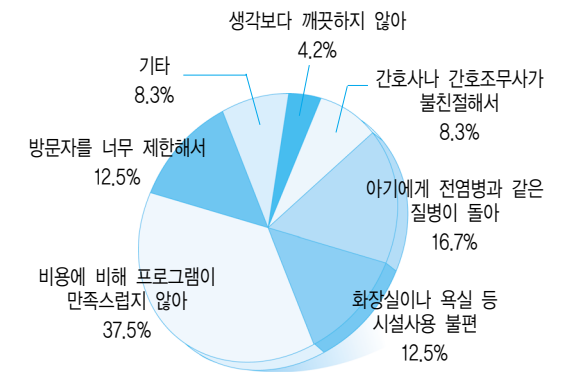
산후조리원 이용 도중 8.4%가 '중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중도 포기 이유로 37.5%가 '비용에 비해 프로그램이 만족스럽지 않아서'가고 답했다<표 참조>.

■ 응답자 69.4% '당국의 법적 기준 마련 및 단속 강화' 원해

신생아 관리에 대해 56.8%가 만족한 편이라고 한 반면, 43.2%는 '그저그렇거나 불만족하다'고 답했고, 산모관리에 대해 38.6%는 '그저그렇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산후조리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61.1%가 '그저 그렇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답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에 대해 응답자 57.9%가 '부족하거나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으며 24.6%는 '전문의 검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답했다.

<표> 산후조리원 이용 도중 포기한 이유



향후 산후조리원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36.8%가 '당국의 수시점검 및 단속', 32.6% '법률에 근거한 시설확충 및 안전관리 철저' 순으로 답했다.

■ 결 론

산후조리원은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해 산후조리원 이용이 늘고 있지만 비용부담 등 관련 서비스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물품들로 인한 감염 및 전염은 물론이고, 전문인이 신생아의 상태를 24시간 관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등 시설기준 및 자격기준이 미달된 채로 영업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법조항 마련 및 개선으로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해야 할 것이며, 산후조리원측은 전문 인력 배치 및 철저한 위생관리를 비롯해 이용요금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대전광역시지부>

소비자의 소리



제조사 허위 고지로 구입한 침대, 반품 환불 요구

내용 김경구(경북 칠곡군)씨는 2007년 8월 26일 천평지구 파로마 가구에서 4인용 식탁과 협탁을 포함한 침대를 105만원에 구입하였는데 매트리스 가격은 68만원이었다.

구입 당시 프랑스 제휴사인 누벨사에서 제조한 것이라고 하여 구매하였는데, 사용도중 매트리스에 부착된 라벨을 확인하니 제조사가 상하이로 되어 있어서 업체에 확인하니 OEM제품이고 수입한 제품이기 때문에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반품요구에 거절해 피해 구제 요청을 하였다.

처리 계약서 확인결과 “매트리스 프랑스누벨”로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매트리스 라벨을 사진으로 요청 확인한 결과 제조원은 “SHENGHAI”, 수입원은 누벨이었다. 해당 업체에 수입원장을 요구하였으나 어디에도 제조원이 프랑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어 입증에 안 되었다.

이에 사업자에게 제품 판매시 허위 고지인 경우 계약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반품하고 환불해주어야 함을 인지시키고, 소비자도 6개월간 사용했으므로 제품은 소비자가 그대로 사용

하고, 사업자는 허위 고지로 인해 소비자에게 20만원을 배상기로 합의 조정하였다.

노트북 컴퓨터 보증기간 이내 하자에 수리비 요구

내용 류서곤(대전시 서구)씨는 2005년 5월 도시바 노트북을 구입하여 사용 중 전원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하여 대전에 있는 A/S센터에 수리를 의뢰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메인보드가 망가져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메인보드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3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수입제품을 이유로 국내 규정을 따를 수 없다며 수리비를 내라 하는데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지 알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컴퓨터 메인보드의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품질보증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다. 수입품이라 하여도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고, 제조처 또는 판매처에서도 수리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알려 무상 수리 받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스포츠센터 등록 후 개시일전, 해약 환불 요구 거절

내용 안상미(경기도 안성시)씨는 2007년 12월 24일 로얄휘트니스 센터에 4개월 이용하기

로 계약하고 25만원을 지불하였다. 5일이 지난 29일 갑자기 일이 생겨, 2008년 1월부터 이용하기로 한 스포츠센터를 갈 수 없게 되어 등록비 환불을 요구하니 업체에서 거절해 도움을 요청해왔다.

처리 해당 스포츠센터에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개시일 이전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여 25,000원 공제 후 환불 처리하였다.

온도 -3℃ 이하에서 시동 걸리지 않는 오토바이 A/S 불만

내용 박안하(울산시 중구)씨는 2007년 7월에 울산 중구 오토바이 대리점에서 구입한 효성 GV650C 오토바이가 영하 3도 이하로 날씨가 추워지면 시동이 걸리지 않다가 오후가 되면 다시 정상으로 작동이 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구입처에 2~3회 방문, 수리를 요청하였는데 계속 아무런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고만 하였다. 2008년 1월 30일에 날씨가 무척 춥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대리점과 상의하여 새벽 4시에 직접 확인을 하기로 하였는데 역시 시동은 걸리지 않았지만 대리점과는 새벽 6시가 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 다음날 대리점과 통화했으나 별 방법이 없다고 한다.

처리 효성 본사에 직접 연락해 하자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본사, 울산대리점, 소비자와 함께 서로 상의하여 해당 부품 교체 및 수리 등

전체적인 점검을 한 후 오토바이를 인수 받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2월 11일 현재까지 아무 하자 없이 정상임을 확인하였다.

미술학원 수강료 중도 해지 요구에 학원측 전액 납부 청구

내용 양인숙(제주시 일도동)씨는 자녀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다니던 미술학원을 그만두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다니던 학원 이어서 2월분 학원비는 미지불 상태이고 2008년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총 10회를 수강했다.

해당 학원에 학원비를 중도 해지할 경우 어떻게 지불해야 되냐고 문의 했더니 2월 수강료 전액을 지불하라고 하여 관련 기준을 알고 싶다고 했다.

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수강료 지불 기간이 1개월 단위로 하는 경우에 있어 개시일 이후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 1/2경과 전에는 수강료 1/2 해당액을 환불, 계약기간의 1/2 이후일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음을 알려 주었다.

본 상담과 관련 계약기간을 확인 해보니 2월 한 달 수강기간은 22일이며 이 중 수강한 횟수는 10회임을 볼 때 1/2경과 전으로 확인되어 1/2 해당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학원측에 관련 규정의 타당함을 알려 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곽정자 / 본회 소비자상담실장>

바뀐 「양곡표시제도」, ‘맛있는 쌀’ 구분 가능해져

– ‘품질’ 표시로 소비자들 맛있는 쌀 구분 가능해져 –

소비자에게 쌀에 대한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해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양곡표시제가 2월 4일부터 새롭게 개선되어 시행된다. 농림부가 발표한 ‘양곡표시제도’ 개선 내용을 알아보자.

◆ 쌀 품질표시 항목과 기준 없어 ‘맛있는 쌀’ 구분 어려워 제도 개선

현재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판매업자가 가공업자가 쌀을 판매할 경우, 8개 사항(의무 7, 권장 1)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맛있는 쌀 등과 직접 관련된 정보는 권장표시사항인 “등급” 밖에 없어 고품질의 쌀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품질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쌀 품질 표시방법이 미흡하다 보니 독자적으로 쌀 품질을 표시하는 기관·단체가 늘어나고 표시방법도 서로 달라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었고, 권장표시사항이나 표시를 하더라도 특별한 인센티브 없이 표시방법위반이나 허위 표시에 따른 벌칙만 있어 표시율 낮았다.

◆ 종전 권장표시사항인 “등급”은 “품위”로 변경, “품질”을 권장표시사항으로 추가

이에 따라 쌀 품질 표시방법을 개선해 종전 쌀의 외관상태를 나타냈던 등급은 “품위”로 변경하고, 밥맛 등과 관련된 “품질”을 권장표시사항으로 추가했다.

새로 추가되는 “품질” 표시항목은 쌀 품질에 미치는 영향, 표시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계측·검정 방법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관련기관·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① 단백질 함량 ② 완전립 비율 ③품종 순도 3가지로 하였다.

품위는 종전의 등급 규격인 특, 상, 보통으로 표시되고, 품질은 해당되는 란에 동그라미(○) 등으로 알기 쉽게 표시된다(표 참조).

◆ 단백질 함량은 낮고, 완전립 비율과 품종순도는 높아야 좋은 쌀

밥맛에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 함량은 질소질 비료 사용량과 방법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질소비료를 많이 사용하면 수확량은 늘지만 단백질 함량도 높아져 밥이 딱딱하고, 찰기와 질감이 떨어진다.

완전미의 비율은 높을수록 고품질의 밥맛의 쌀이다. 깨진 쌀, 맑은 빛이 돌지 않는 뿌연 쌀 등이 많이 섞여 있으면 당연히 맛이 떨어진다. 또한 다른 품종이 많이 혼입되어 품종순도가 낮으면 품종간 숙기가 달라 미숙립·과숙립이 발생하고, 도정시에 불균립이 발생해 도정수율도 떨어지게 된다. <자료참조: 농림부>

<종전의 일괄표시>

생산년도	2007년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	
중 량	20kg	주소	○○도 ○○군 ○○면 ○○리 ○○번지
품 종	일품	상호명(성명)	○○미곡종합처리장
원산지	○○군	전화번호	031) ○○○ - ○○○○
도정·가공 연월일	2008.1.1	등 급	특



<개선된 일괄표시 (2008. 2. 4부터 시행)>

생산년도	2007년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	
중 량	20kg	주소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〇〇번지
품 종	일품	상호명(성명)	〇〇미곡종합처리장
원산지	〇〇군	전화번호	031) 〇〇〇 - 〇〇〇〇
도 정 연월일	2008. 1. 1	품 위	특
쌀 품질 표시			
단백질 함량	완전립 비율		품종 순도
6.0%이하	96.0%이상		90%이상
6.1~6.5%	93.0%~95.9%		85%~89%
6.6%이상	92.9%이하		84%이하
좋은 쌀의 기준			
* 단백질 함량은 낮을수록, 완전립 비율은 높을수록 밥맛이 좋음			
* 품종순도가 높을수록 품종고유의 밥맛을 느낄 수 있음			

‘연료절감기’ 무료장착 상술 조심하세요

기름 값이 올라가면서 늘어나는 소비자 피해 중 하나가 ‘연료절감기’ 무료장착 상술 피해다. 한푼이라도 아껴보려는 심리를 악용해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상술은 오히려 제철을 만난 듯 기승을 부리고 있어,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그 피해 유형 및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 ‘연료절감기’ 피해 현황

연료절감기 피해 상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04년에 167건, ‘05년에는 38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06년 185건, ‘07년 92건으로 감소하였다가 9월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월별접수 건수를 보면, 작년(‘07) 9월에는 8월보다 3배 증가한 후 점차 증가하다가 12월에 감소하더니 올 1월에 다시 3배이상 증가하였다. 판매방법별(07. 1. 1~08. 1. 31)로 보면 방문판매가 53건으로 45.7%, 노상판매가 39건으로 33.6%로 나타나 총 79.3%가 판매원의 상술에 의한 충동구매 계약이었다.

◆ ‘연료절감기’ 피해 사례 및 발생원인

연료절감기 피해는 노상이나 주차장 등에

서 매연단속반인 것처럼 차를 세워 매연이 심하다고 접근하거나, 자동차 회사의 차량무상점검 빙자, 심지어 환경청 직원 사칭 및 자동차보험료 지원 등을 미끼로 현혹하여 기기를 장착한 후 CMS로 현금을 빼내가는 수법을 사용한다.

<피해사례> 노상에 매연단속원 위장 상술

최○○씨는 2007년 12월 13일 경북 예천군 예천면사무소 부근을 주행하던 중 노상에서 매연단속원처럼 정비복을 입을 4명~5명이 차를 세운 후 매연검사를 하더니 매연이 심해 단속에 걸린 다며 특별 홍보용으로 매연절감 및 연료절감에 탁월한 연료절감기를 공짜로 주는데, 연료절감기를 장착한 차량은 5년간 환경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기기를 장착했다.

장착 후 계약서를 주는데 대금 888,000원이라

고 하여 당초 약속과 달라 이의제기하자 판매원의 회사에서 통신회사에 선 입금한 후 매월 사용한 통화료 만큼씩 인출해 가고 무료통화권을 준다고 하여 1시간가량 다녔으나 이미 기기를 장착했기 때문에 탈착이 안 된다고 하여 무료통화권을 충전 받았다. 이후 통장에서 대금 888,000원을 인출해 갔는데 연료절감 효과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080무료통화권도 불편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유명 자동차 회사의 무상점검 서비스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고, 이미 제품을 장착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대금 결제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매원을 실제 매연단속반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문판매원에 불과하고, 자동차 회사의 경우 고객센터 차원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를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금품을 요구하는 일은 없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소비자 주의사항

1 노상이나 직장을 방문해 무상 차량점검을 해 준다는 경우 대부분 자동차 회사와 상관없으며, 자동차 회사에서는 무상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2 무료 또는 사은품, 정부지원금, 보험료 할부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연료절감기를 장착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3 차량점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동차회사의 서비스센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정비업소를 한 군데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4 방문판매원은 소비자가 약간의 관심을 보이면 이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설득해 장착해 놓고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해약 가능하고 즉시 A/S를 해준다고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해약거절 및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속지 말아야 한다.

5 연료절감기와 같은 차량용품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품목이므로, 제품 구매를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되 청약철회 조건이나 위약금 등 중요한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고, ‘언제든 해약가능’ 등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사항에 적도록 해야 한다.

6 계약서 내용에 ‘CMS 출금 동의서’라고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서명할 경우 현금이 자동이체되므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7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판매자와 신용카드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판매자가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상담 기관에 즉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해외구매대행 사이버몰, A/S 어렵고 반품 수수료까지 부가

최신 유행하는 해외 상품을 저렴하게 사준다는 해외구매대행 사이버몰이 많이 등장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구매대행 사이버몰 이용시 안전구매 수칙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 ‘해외구매대행 사이버몰(통신판매업)’이란?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해외 유명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재화 등에 대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구매 대금을 미리 지급 받은 후 해외 사이버몰에서 제품을 구매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통신 판매 방식이다.

◆ 해외구매대행 사이버몰의 문제점

해외구매대행 사이버몰은 구매대행과 국제특송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있어 소비자 불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제품을 주문해도 해외에서 상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배송이 늦어지거나 배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해당업체가 구매 대행만 하기 때문에 환불 및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책임 전

가를 비롯해 반품 수수료 부가 등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 해외구매대행 사이버몰 이용시 안전구매수칙 8가지

이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매대행 업체 이용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기본이며 상품 구매 후기 및 상품 정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구매 안전 수칙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구매대행 업체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해외 구매대행 사이버몰 중 해외 배송 등을 이유로 주문 취소·반품·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일반 사이버몰을 이용한 구매와 동일하게 소비자는 물건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반품 비용 부담을 고려한다

반품이나 청약철회시 왕복 국제 운송료 등을 부담해야 하므로 국내 사이버몰에 비해 소비자의 반품 비용 부담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 많은 경우 구매 대금의 40~60%에 이른다.

③ 반품 비용 중 내역을 확인한다

사업자는 반품에 필요한 국내외 왕복 운송료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 청구해야 한다. 구매 대행 수수료까지 반품 비용으로 청구하는 업체도 있다. 이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청구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④ 사이즈나 색상 선택시 신중을 기한다

외국 제품들은 국내 제품과 치수 기준이 다르므로 디자인이나 브랜드에 따라서도 치수 차이가 날 수 있다. 의류나 신발 등 사이즈가 중요한 제품은 신중하게 선택한다.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하는 것은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에 해당되므로 왕복 국제 운송료 등 구매 대금에 비해 높은 반송비를 부담해야 한다.

⑤ 고가품은 신중하게 선택한다

지속적으로 애프터서비스가 필요한 고가품은 국내 수입 판매점을 통한 구매와 달리

해외구매대행 사이버몰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애프터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애프터서비스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국제 운송료 등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

⑥ 예상보다 높은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제품은 국제 운임료가 비싸 이것이 상품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 반품 시에도 비싼 반송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가볍고 부피가 작은 제품 위주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⑦ 환율 변동 시차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환율 변동, 관세율표 개정, 전산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과 구매 대행 통신 판매업자가 실제 사용한 비용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비자는 사후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결제 금액의 ±5% 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⑧ 구매 안전 서비스 가입 확인과 이용은 필수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결제 대금 예치(에스크로) 등 구매 안전 서비스 가입 여부를 초기 화면과 결제 수단 선택 화면에서 확인한다. 1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구매 안전 서비스를 이용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료참조: 공정거래위원회〉



윤리적 소비,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최근 윤리적 소비라고 불리는 '공정무역'이 새로운 브랜드 가치로 부상하면서 기업들이 속속 '공정무역'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공정무역'이 아직도 생소하다면 이번 기회에 알아두는 것이 윤리적 소비자의 기본자세일 것이다.

◆ '공정무역'이란?

공정무역은 선진국과 저개발국 사이에 불공정한 거래를 막고 제3세계 생산자들이 만든 물건을 공정한 가격을 주고 사는 무역활동이다. 세계를 장악한 다국적 기업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함으로써 원조 대신 경제활동을 통해 빈곤 문제를 해결하자는 운동이다. 공정무역의 주 대상은 커피, 코코아, 면화 등 대부분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생산 후 미국과 유럽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다.

◆ '공정무역'의 등장배경 및 현황은?

'국제무역으로 얻은 이익의 80%를 세계 20%의 부자들이 갖고 1%의 이익을 가난한 사람 20%가 나눠가진다'는 보고서 결과가 나올 정도로 왜곡된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무역구조를 바꾸자는 인식에서 바로 윤리적 소비 운동 '공정무역(페어트레이드, Fair Trade)'이 시작된 것이다.

'공정무역' 운동은 미국의 '사우전트빌리지'라는 시민단체가 1964년 푸에르토리코에서 바느질 제품을 구입한 것을 시작으로, 1950~60년대 영국의 시민단체인 '옥스팜'을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해왔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공정무역연합 외에 아름다운 가게, 두레생협연합 등 여러 단체들이 공정무역제품 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다.

◆ '공정무역'의 목적 및 원칙은?

공정무역은 공정한 가격보장, 공정한 발언권 제공, 공정한 이익 분배를 목적으로, 기본 원칙들을 지켜나가고 있다.

특히, 원산지에게 물건을 구입할 때 평균

10% 정도를 도로, 학교 짓기 등 해당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사회적 초과 이익 환원'의 원칙은 지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추구하고 있다. 이 밖의 다음의 기본 원칙(표 참조)을 바탕으로 윤리적 소비 운동을 확대하고 있다.

● 공정무역의 기본 원칙 ●

-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 제공
- 투명경영으로 동등한 거래 관계 확립
- 생산자 자립 기반 조성
- 공정한 가격을 생산자에게 지급
- 생산과정 및 상품 정보 공개
- 남녀 동등 및 아동 노동 금지
-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 제공
- 자연원료 사용 및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 이용
- 공정무역 조직과 생산자의 장기적 관계 형성

◆ '공정무역' 제품의 가격과 품질은?

초기 공정무역을 시작할 때는 다소 제품의 질이 낮아도 동정심에 호소한 양심적 소비를 유도했다면, 지금의 공정무역 제품은 일반 제품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과 가격을 가지게 되었다.

공정무역 제품은 모두 유기농 재배 및 천연 원료를 사용해 만들어진 제품으로 철저한 품질 관리를 받는다. 공정무역 제품 인증기관인 '국제공정무역제품인증기구(FLO)'는 각 제품에 대한 표준과 생산·유통 원칙 등을 설정해서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수준 이하 제품은 과감히

폐기 처분하고 있다.

현재 FLO의 인증마크가 있는 공정무역 제품은 커피, 의류, 수공업품, 가공식품 등 전 세계적으로 2천여 개에 이르고 있다.

◆ '공정무역'의 문제점 및 시사점은?

윤리적 의식을 강조하는 공정무역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소비자들은 자유 시장 경제법칙(자유무역)에 어긋나며 일부 기업들의 공정무역 동참이 기업 이미지를 위한 것이지 진정한 의도는 없을 것이라며 그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공정무역이 오히려 제3세계 생산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 것이고, 일부 기업들의 이익창출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자칫 공정무역의 상업화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무역'은 인류애를 내세운 상품 브랜드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해 소비자들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소비자의 힘'을 보여주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공정무역 제품을 취급, 판매하는 윤리기업의 상품을 구매하는 윤리적 소비자가 많아지면 궁극적으로 지구 환경을 지킬 수 있고, 가난한 나라의 빈곤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정무역은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세계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공정무역' 제품의 선택은 이젠 타인의 선택이 아닌 바로 나의 선택이 되고 있다.

〈내용참조: 한국공정무역연합〉

올해 유행할 신(新) ‘소비 트렌드’

현대인들의 소비성향을 살펴보면 그 시대를 알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은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가 발표한 ‘2008년 대한민국 11대 소비 트렌드’의 내용의 일부이다. 이번 기회에 자신이 어떤 소비성향을 추구하는지 한 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Kitsch & Retro(키치적 복고)

키치란 촌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복고적 대중 취향을 말한다. 키치가 주목 받는 이유는 주로 세가지 경우다. 첫째 과거에의 향수 때문에, 둘째 톡톡 튀고 싶어서, 셋째 그냥 재미있어서이다. 테크노 트로트 가수 이박사가 뜬 것도 키치 영향이다. 어른들의 동심을 자극할 키덜트(Kid+Adult, 동심을 간직한 성인) 제품은 물론이고, 복고적 취향의 영화들, 촌스러운 이름들도 각광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젊은 세대로 이에 뒤질 리 없다. 엽기적이고 장난스러운 키치 아이템들로 일부러 촌스럽게 장식한 젊은이들이 과도한 럭셔리 문화를 유쾌하게 조롱할 것으로 예상된다.

Eco-friendly(환경 지킴이)

환경, 건강, 안전한 삶에 대한 관심은 더

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해안 원유 유출사고는 온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매우 적극적으로 환경지킴이를 자처하는 에코 매니아(eco-maniac)이 출현해 이러한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다. 또 집과 사무실을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꾸며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자 하는 새로운 ‘그린 노마드(green nomad)족’ 등 확장된 개념의 친환경 소비층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소비자들도 에너지 절약형 상품이나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한 상품에 대한 관심을 키워갈 것으로 보인다.

Mr. & Ms. Consumer(행동하는 소비자들)

서해안 원유유출 사건과 삼성 특검 등 일련의 사회적 사건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의 폭을 크게 확산시켰다. 소비자들의 교육 수준과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

에 따라 기업의 환경·노동·공정거래·사회계층 배려 등에 대한 노력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러한 경향에 발맞추어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마케팅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소비자운동이 문제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boucott)의 형태를 띠었다면,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한 구매운동(buycott), 여성 소비자들의 활동을 강조하는 여성주의 구매운동(girlcott) 등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Only for me(나는 나)

‘나만을 위한 소비’가 확실한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미니 와인이나 작은 햇반, 미니 냉장고 같은 1인용 소형 제품의 매출이 부쩍 증가하고 있는 현상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기지향적 소비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상품의 급증이다. 어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닌텐도게임 등의 인기가 좋은 예이다. 개인별 맞춤형 여행인 FTT여행(free individual travel)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소비자가 직접 만드는 제품의 확산이다. DIY(Do it yourself)를 넘어 R(Repair)IY, M(Make)IY로 진화하고 있다. 셋째는 사소한 것의 명품화이다. 최근에는 USB메모리나 휴지와 같이 사회와 거리가 먼 제품에도 럭셔리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Smart(알뜰한 소비자들)

명품화 열풍은 역설적이지만 염가의 가치 지향적 시장도 함께 키웠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품은 명품으로 장만하지만, 나머지 제품군에 대해서는 가격 대비 품질에 극도로 민감해지는 것이다. 거리에 즐비한 저가 화장품, 캐주얼 옷, 구두, 가방 등 소위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시장을 보라. 패션뿐만 아니다. 복잡 다양한 기능을 가진 비싼 제품 대신 필요한 기능만을 탑재한 MP3, 노트북, 휴대전화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소비자는 더 이상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가격이나 기능에 타협하지 않는다.

이외에 ‘Multi(복합화)’로 다기능화(multi-play) 또는 복합공간화(multi-space)가 각광받은 것이며, 꾸며진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의 가치들을 중요시할 ‘Inspired by reality(날것에의 동경)’, 화려한 컬러를 선호하는 ‘Colordiction(색채에 중독되다)’, 새 정부 출범과 올림픽 등으로 애국심 마케팅이 상승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Year of Patriotism(아! 대한민국)’, ‘Ultra-mobile(울트라 모바일)’ 제품 및 수익을 찾아 돈이 몰려다니는 ‘Economic Anxiety(재테크 전쟁)’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자료출처: 조선일보 ‘올해 소비 트렌드는 MICKY MOUSE’ 기사(08.1.26) 내용 중 일부 발췌>

새 가구 한 달 지나도 유해물질 방출량 30%밖에 안 돼

침대, 식탁, 소파 등 가구를 구입한 지 4주가 지나도 새집증후군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HCHO)의 방출량이 30%밖에 줄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4일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침대, 장롱, 소파, 식탁, 사무용책상, 소형탁자 등 6개 종류의 가구에 대해 4주간 폼알데하이드의 시간당 방출량을 측정한 결과 28일째의 평균 방출량은 첫 조사인 1일째의 70.3% 수준인 것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폼알데하이드는 메탄올의 산화로 생기는 자극성이 강한 기체로, 주로 합판이나 하드보드 등 나무로 만든 제품에 접착제 등으로 사용돼 아토피성 질환이나 암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과학원은 새 가구를 구입했다면 한달이 넘게 충분히 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선불식 교통카드, 인적사항 등록 해야 소득공제

올해부터 티머니 등 선불식 교통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선불식 교통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교통카드 발행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기명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공제방법이 변경되는 선불식 교통카드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하는 수도권과 대도시의 티머니(T-money)카드, 마이비(Myb)카드이고 아직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비(ib)카드 등은 월 사용금액이 5천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에 의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하철공사 등이 발행하는 정기승차권은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처럼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제방법이 바뀐 선

불식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카드 발급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연말 정산을 할 때 연간 사용금액을 조회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과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상조상품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담사례 유형을 바탕으로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소비자 피해 상담사례 유형은 ▶ 계약해지 시 납입금 환급 거절·지연 또는 과도한 위약금 요구 ▶ 도산·폐업으로 인한 상조서비스 미 제공 ▶ 상조서비스 제공대상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비스 미 제공 ▶ 특정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 별도 요금 요구 ▶ 약정 내용보다 질 낮은 장례용품 제공 ▶ 상조상품을 저축상품으로 설명 회원모집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

고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고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물모양 전기제품은 안전인증 못 받는 '불법' 제품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시중에 동물모양 전기용품이 유통되고 있어 이를 장난감으로 오인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동물 모양의 전기용품을 수입해 판매하지 말 것을 유통업체와 세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2월부터 '전기용품 외관은 아이들에게 장난감으로 취급될 수 있는 형상이나 장식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기준을 적용해 안전인증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최근 이런 전기용품 판매가 급증해 단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동물 모양의 전기용품은 그 자

체로는 위험하지 않으나, 어린이들이 장난감으로 오인해 가지고 놀다가 화상이나 감전 사고를 당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쇼핑몰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개구리 모양을 한 가습기나 닭 모양의 계란 찜기, 고양이 모양의 토스터기 등 20여 가지의 전기용품이 1만~3만원선에 팔리고 있다. 기술표준원의 확인 결과 이들 제품 대부분은 중국산 등 수입제품으로 마치 정상적인 인증을 받은 것처럼 불법으로 안전인증 표시를 하고 있었다.

이에 기표원은 동물 모양의 전기용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관세청과 세관에는 수입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를 통해 수시로 불법제품 판매업체를 조사해 고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이들 제품의 유통을 빠른 시일 내에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료 가격도 줄줄이 상승, 최고 12% 인상

라면, 빵, 과자 등 서민식품의

가격상승에 이어 음료 가격이 인상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과일 농축액, 과당 등 원·부자재 가격이 오르는데다 고유가로 인해 물류비용까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업체별로 주스류와 탄산음료를 4~12% 올리는 한편 커피는 5% 내외, 먹는 샘물은 3~6% 등으로 올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료업계가 가장 큰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제품은 주스류. 지난해 자연재해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오렌지 공급물량이 줄어들면서 오렌지 농축액 가격이 2배 이상으로 폭등하자 국내 음료업체들은 지난해 오렌지 주스 가격을 20% 전후로 인상했으나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 수준에는 못 미쳐 적자분을 고스란히 감수해 왔다는 것이다. 더불어 올해 들어서는 오렌지에 이어 사과와 포도 농축액까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스류 제조 원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 * *

검정콩 차가 콩 차(茶) 중에서 영양 최고

콩을 차(茶)로 만들 때 가장 뛰어난 성분을 함유한 것은 검정콩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은 검정콩, 갈색콩, 푸른콩, 황색콩 등 유색 콩 품종을 이용한 기능성 콩 차 가공적성 연구 결과, 18개 검정콩 차의 노화나 암을 예방하는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 평균 용출량은 825.5 μ g/ml로 갈색콩 681.5 μ g/ml, 푸른콩 226.7 μ g/ml, 황색콩 153.2 μ g/ml보다 월등히 많았다고 밝혔다.

작물과학원은 검정콩 껍질에는 기능성 성분인 안토시아닌 색소가 많이 함유돼 있으며 이는 220~240℃의 온도에서 10분 정도 볶은 뒤 95℃의 물에서 5~10분 정도 우려낼 경우 용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정콩을 볶는 온도가 너무 높거나 시간이 길 경우 안토시아닌 색소들이 파괴돼 용출량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작물과학원 관계자는 각종 연

구 결과 검정콩은 암 발생, 노화는 물론 비만 억제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고, 이런 이유로 기능성 차 시장에서 검정콩 차의 소비확대는 농가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욕억제제, 4주 먹어도 효과 없으면 중단해야

비만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향정식욕억제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처방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최근 다이어트 열풍으로 향정식욕억제제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문제시 된다고 12일 밝혔다.

향정식욕억제제를 오남용할 경우, 수면장애나 우울증이 야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때 우울증 등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적 약물을 함께 복용할 경우, 각 약물간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심장 유해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식욕억제

제 처방조제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공문을 관련기관에 보내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발표하면서 특히, 향정식욕억제제를 4주 가량 복용하고도 체중감소 등 효과가 없다면 이는 약물로 체중을 감량하기 힘든 것이라는 의학 전문가의 결론에 따라 향정식욕억제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일 적정 보관 온도 0~-15℃, 사과와 감은 따로 보관

농진청은 설 차례 후 남은 과일들의 효율적인 보관 방법을 다음과 같이 홍보했다. 특히 제수용 과일보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적정 보관 온도는 0~-15℃로 적정 보관온도보다 높으면 품질이 떨어지고 낮으면 과일이 얼어버린다는 것이다.

보관할 과일 양이 많지 않다면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과일 건조를 막기 위해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밀폐용기가 아니더라도 비닐팩 등으로 싸서 보관하면 되지만 이때는 비닐팩에 2~3개 구멍을 뚫어 과일에게 산소를 공급해줘야 한다.

또한 상자째 과일을 보관할 때는 그늘진 북쪽 베란다에 과일을 보관하고 창문을 약간 열어 환기를 시켜주면 최소한 2~3달은 맛있게 과일을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수용 과일을 보관할 때 특히 주의사항으로는 사과와 감은 따로 보관해야 한다는 것. 감이나 참다래는 사과에서 나오는 노화 촉진 호르몬인 에틸렌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과와 감을 같이 보관하면 감은 금방 물러져 홍시가 된다. 일부러 홍시를 만들기 위해 사과와 함께 보관할 수도 있지만 단감의 경우 아삭한 맛에 사과와 같이 보관해서는 안 된다.

그 밖의 과일인 바나나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색이 변하기 때문에 8~10℃ 정도의 온도에 보관하고 껍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보관 온도는 3~4℃를 유지해야 한다.

유제품, 치아 '튼튼' 치주질환 예방에 도움

우유·치즈·요구르트 등 유제품을 함유한 식사가 뼈를 튼튼

하게 하고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오랫동안 잘 알려져 온 바 '치주학저널' 최신호에 일본 큐슈대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결과 매일 유제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치주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주 질환은 잇몸과 치아를 지지하는 뼈에 영향을 주는 만성 세균성 감염으로 성인에서 치아 소실을 유발하며 또한 심장질환 발병을 초래하고 뇌졸중 위험을 높이며 또한 당뇨 합병증 및 호흡기 질환,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다.

40~79세 연령의 9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규칙적으로 매일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 섭취가 잇몸 질환 발병률을 줄일 수 있는지를 연구한바 유제품 섭취가 구강 건강을 증진시켜 전체적인 인체 건강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산 건강기능식품에서 부적합 비만치료제 성분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산

건강기능식품(화분추출물 제품)에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한 의약품 성분을 수입단계(경인지방식약청)에서 적발하여 해당 제품을 반송·압류 등 조치하였고, 수입업소에 대하여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라 영업소 폐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부적합 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현재 의약품 성분으로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페닐프탈레인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번에 의약품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일반인이 섭취하였을 경우 부작용 발생우려는 크지 않으나, 과민성 환자, 심혈관계 질환자 등이 섭취한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식약청은 중국 정부에 부적합 제품에 대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보톡스 안전성에 '적색경보' 발령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보툴리눔 독소가 주사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근육마비 등의 반응을 일으키는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됐으며 심한 경우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하기도 했다면서 보톡스에 대해 호흡 곤란, 사망과 관련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식약청도 대한 의사회 등 보건전문가단체에 보툴리눔 독소제 투여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의약품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톡스로 인한 사망이나 중대한 유해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지만, 이번 미국 FDA의 발표와 함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의 보톡스에 대한 '건강 적색 경보' 발령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특히, 건약은 보톡스 주사가 안검경련이나 사시 개선 등에 쓰이는 약으로 허가 받아 시판되고 있는데 눈가주름이나 팔자주름 등 얼굴주름 개선을 비롯해 최근

에는 사각턱 교정에도 효과가 있다면서 사용되는 등 허가받은 용도보다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을 비판했다. 더불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휴대폰 과도한 사용, 암 발병 위험 50% 높아

'미역학저널' 최신호에 실린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연구팀의 연구결과, 과도한 휴대폰 사용이 침샘의 양성종양 및 악성종양 발병 위험을 높였으며 과거 연구결과와 나타난 휴대폰 사용과 암 발병과의 연관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침샘내 종양이 생긴 쪽에 휴대폰을 대고 과도하게 사용한 사람들이 이 같은 모바일폰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이하선등 주요 침샘내 종양 발병 위험이 50% 가량 높았다.

1300명의 휴대폰을 적당하게 사용하는 사람을 비교한 이번 연구에서 심지어 안테나가 적어 방사선 노출이 비교적 적은 시골지

역에 사는 휴대폰 과도 사용자에게서도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이번 연구에서 휴대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과 아이들에서 이 같은 위험이 가장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팀은 휴대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암 발병까지는 잠복기가 매우 길어 이 같은 위험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지만, 휴대폰 사용을 줄여 건강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돼야 수십 년 후 이 같은 과도한 휴대폰 사용에 의한 암 발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레르기질환, 과민성대장증후군과 연관 있어

미국 러시 대학 연구팀이 의학전문지 '알레르기-천식-면역학회보(Annals of Allergy, Asthma & Immunology)' 최신호에 알레르기 질환이 과민성대장증후군(IBS)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12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분석 결과 알레르기습

진 환자와 계절성 알레르기비염 환자는 과민성대장증후군이 나타날 위험이 각각 3.85배와 2.6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우울증이 있는 사람도 과민성대장증후군 위험이 2.56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를 이끈 토빈 박사는 이처럼 알레르기 질환이 겹친 과민성대장증후군은 일반적인 과민성대장증후군과는 병리-생리학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환자는 일반 환자와 분리해서 별도의 치료법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민성대장증후군은 설사, 변비, 불규칙적 배변, 복통 등이 따르는 복합적인 소화기질환으로 미국의 경우 환자가 전체인구의 약15%에 이르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의학전문지 '알레르기-천식-면역학회보(Annals of Allergy, Asthma & Immunology)' 최신호에 발표되었다.

2세 미만 영유아, 의사처방 받아야 감기약 복용

앞으로 2세 미만 영유아는 의사 진료를 받지 않고 감기약을

복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4일 2세 미만 영유아는 감기약, 진해거담제 및 비염용 경구제 복용시 의사의 진료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감기약을 제조·판매하는 제약사들은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약을 복용시키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제품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의 경우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일치하도록 조정했다고 말했다.

귀지 파지 말고, 면봉 사용하지 말아야

귀의 통증이나 진물, 가려움증 등으로 이비인후과를 찾는 환자 10명 중 3~4명이 외이도염 환자일 정도로 외이도염은 흔하다. 귀이개나 면봉을 잘못 사용해서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비인후과 전문의에 따르면

귀지는 따로 팔 필요가 없다. 외이도와 고막의 피부가 특이하게 귀 바깥 방향으로 자라 내버려둬도 귀지는 자연히 귀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손을 대지 않더라도 저절로 세척되고 밖으로 배출된다는 것이다.

특히 목욕탕에서 면봉 사용은 조심해야 한다. 목욕하면 귀 안의 피부도 부드러워지는데, 이 상태에서 귀를 후비면 외이도의 피부가 찢과상을 입기 쉽다. 상처가 세균에 감염되면 '급성 외이도염'으로 진행된다. 처음에는 약간 불편한 정도지만, 나중에는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음식을 씹기도 힘들어진다. 면봉으로 자주 귀를 후비면 외이도염이 생겼다가 앓았다를 반복하면서 만성화할 수 있으며, 심하면 외이도가 좁아지기도 한다.

따라서 귀지는 고막 쪽에서 귀구멍 입구 쪽으로 저절로 나오므로 손대지 말고 놔두는 것이 가장 좋으며, 만약 물이 들어가서 불편한 경우 면봉 사용보다는 드라이어기의 찬바람으로 말리는 게 좋다.

수요일

노 순 자 / 소설가

난징 대화재 일본군 위안소 건물 전소. 남편이 보내온 문자에 준희는 더럭 화가 치민다. 시어머니 심부름 건 좀 해결해 달라는 문자는 씹더니 난데없는 화재라니. 벌렁거리는 가슴으로 송례문을 지켜본 게 사나흘전인데 남의나라 참혹한 유적지에 불난 걸 어쩌란 말이냐고 고함치고 싶은걸 참으며 그녀는 엄지를 놀린다.

화는 내지 말아야지. 방긋 웃어야지. 화재소식 알려주는 남편이 이상할건 없다. 문제는 살아가는 모든 가정사를 슬금슬금 준희에게 떠넘기는 건데 우선은 참자. 감정으로 행동하다 덤터기 쓴 게 어디 한 두 번인가.

오늘 수요일 자기 담당인거 알지?

의무를 일깨워주고 확인을 누르면서 조금 어깨가 가벼워진다.

일주일에 하루 수요일은 남편이 어린이집에 들러 아이를 데리고 퇴근한다. 일이 생기면 남편이 능력껏 해결해야한다.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하다못해 친구를 동원해서라도 준희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겠다. 준희는 모처럼 동료와 상사들 눈치 볼 필요 없이 우아하게 퇴근할 수 있고 그 다음도 자유다. 수요일의 자유는 결혼 전 남편이 제안한 것이었다.

여성에 대한 이해가 남다른 듯 한 남편의 얘기는 매력적이었다. 그 때는 그게 말 그대로 언어의 유희일 뿐 가

정의 무게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아이엄마의 자유라는 게 얼마나 뻥 한 건지도 몰랐다.

남편을 만난 건 7년 전 동경.

국제법정 취재 중에 남편은 열이 빠져있는 준희 옆자리에 앉았고 그네의 나란한 자리는 일주일간 계속되었다.

야스쿠니 신사 앞 구단호텔에서 국제법정이 개막되면서 준희는 자기가 얼마나 무식했는가를 자책할 겨를이 없었다. 초긴장상태였다. 그곳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인 인권, 여성계 인사들과 피해자들, 보도진으로 붐볐고 분위기는 숨 막히도록 진지했다.

그녀는 정신대 문제에 냉담했던 게 진심으로 부끄러웠다. 신문 머리기사나 방송에서 들려오는 것만으로도 끔찍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거기서는 달랐다.

2천 동경 국제법정에 참가한 인원은 인권단체 대표들과 법조인들을 비롯해 2천여 명이 웃도는 대단한 숫자였고 참석자들은 집단으로 1940년대에 가 있었으며 국가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끈끈한 공감대에 묶여 있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남자라는 가해자와 여자라는 피해자가 있을 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전쟁 당시 일본군의 비인도적 악행에 대한 증언들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다양하게 발표되고 국제법정의 핵심주제인 당시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시작되었다. 파란 눈의 백인 노파, 검은 살빛의 할머니, 모국어를 잃어버린 중국 거주 남한 출생의 북한국적 할머니, 이북 할머니, 퇴촌 나눔의 집에 살고 있는 한국 할머니 등 모든 피해자들이 당시 사진이나 기록물, 비디오 등의 자료를 공개하며 증언을 쏟아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 인간의 작태가 아니었다. 어느 할머니는 말을 시작하자마자 울음을 터뜨리고 어느 노인은 증언 중에 혼절해 구급대가 달려와 실어갔다. 참혹하기로는 중국여인들의 난징학살 증언이 가장 심했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노출한 것은 국제무대에 처음 서는 북한 할머니들이었으며 그중 세련된 태도로 조리 있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유럽인들과 남한여성들이었다. 남한 할머니들은 이일을 세계에 알린 장본인들이었고 증언할 기회를 여러 번 가져 정리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당시 일본군이었던 두 명의 노신사가 나와서 가해자의 증언대에 섰을 때는 모두가 숨을 죽였다.

노인들은 다른 모든 군인들과 같은 행동을 했노라고 하였다. 한창 젊은 군인들은 주말만 기다렸고 군표를 받아 가지고 여자와 자러 가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으며 살아있는 생명의 확인이었다는 것이다. 군인들은 마구 달려갔으며 끝없이 길게 늘어서 있는 줄을 서서 기다렸고 때로는 조선 여자, 때로는 중국 여자, 때로는 어느 나라 여자인지도 모르는 오로지 여자일 뿐인 상대와 30초에서 1분쯤 사이에 일을 끝내곤 했다고 고백했다. 그것

은 당연한 일상이었을 뿐 죄의식 같은 건 느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수 십 년 동안 그 일은 잊어버렸고 죄가 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 여성들이 그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서 기억이 났고 가슴을 치게 되었노라고 하였다. 특히 딸과 손녀를 보기가 민망스럽다며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용기가 안 났지만 이런 죄악이 죄악인줄 모르고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이 무서운 일을 혼자 간직하고 죽을 수 없어서 용기를 냈다는 것이었다.

준희와 남편의 인연이 이어진 것은 서울 재동에서였다. 정신대할머니들이 십년 넘도록 열고 있는 수요 집회에 준희는 동경 취재 후 나가게 되었고 남편 역시 그러했다.

다시 다르륵 문자 수신 신호음이 운다. 또 남편이다. 미안해 당신만 믿어 오늘 담당 봐줘. 감옥에서 고문당하는 정의를 모른척해서는 안되잖아? 사랑해. 그럼 그렇지 시택일도 아니고 친정일도 아니고 아이들 일도 아니고 직장일도 아니면서 수요일의 자유가 지탱이 되겠냐고. 중얼거리며 준희는 방긋 웃는다. 이제 화가 날 때면 방긋 웃을 만큼 그녀는 세련된 것이다. ■



서울 출생, 서라벌 예대 문예창작과 졸업하고 1974년 여성동아 장편공모 당선, '현대문학' 추천으로 등단했다. 저서로 <몽유병동>, <산 울음>, <진혼미사>의 창작집과 장편소설집 <타인의 목소리>, <누이여 천국에서 만나자>, <백록담 연가>, <초록빛 아침>, <마음의 물결> 등이 있다. 1990년 제 16회 한국소설문학상, 1998년 제 14회 펜문학상, 2004년 제 2회 월간문학 동리상을 수상했다.



신용카드 서비스의 '허와 실'

신용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요건이 점점 깎간해지고는 있지만, 다양한 서비스 혜택은 여전히 소비자들을 유혹하기까지 한다. 조금이라도 더 소비를 부추기려는 카드사들의 상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부가서비스와 마일리지'는 소비 더 자극하는 상술

재테크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봉급생활자들은 생활비를 지출할 때마다 먼저 연말정산을 떠올리며 소득공제 여부를 따져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신용카드나 이런저런 멤버십카드의 마일리지를 쌓기 위하여 지갑에 현금이 넉넉해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많다. 그뿐만 아니라 보너스 마일리지 행사까지 꼬박꼬박 챙기는 사람조차 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자신을 속으로 알뜰하다며 뿌듯해 하곤 한다.

그러나 이게 과연 실속 있는 일인지는 좀 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탈세유혹을 막고 이를 통해 추가 세원을 발굴하여 국가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분의 15%(2007년 기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소득금액이 1,000~4,000만원인 경우 18.7%의 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실제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절감액은 카드사용액의 15%가 아니라 2%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나마도 모으면 제법 큰돈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무의식중에 소득공제 혜택을 염두에 두어 합리적인 소비 자세를 느슨하게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꼭 이득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이밖에도 많은 판매업자들이 알뜰해진 소비자들을 겨냥해서 멤버십카드 할인제도나 우대제도 등을 잇달아 선보이며 광고하고 있다.

판매업체들은 무슨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골을 확보하고 매출을 늘리기 위한 고도의 마케팅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쉽게 소비하려는 유혹을 가급적 떨쳐버리는 것이 좋다.

■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서비스'는 비싼 이자로 돈 빌려 쓴 것과 동일

일정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는 잘만 사용하면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유용하다. 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사용을 꺼리는 이유는 신용불량 문제가 현금서비스를 사용하는데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금서비스를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전에라도 돈이 생기면 곧바로 갚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이때 고작 하루 이틀을 빌린 것치고는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왜냐하면 현금서비스 수수료에는 현금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비례하는 이자 외에 현금서비스 받을 때마다 하루를 쓰나 한 달을 쓰나 일정비율로 취급수수료가 붙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금서비스 이자율이 연 20% 안팎 수준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취급수수료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현금 수수료는 매번 0.5% 정도를 떼는데 기간과 관계없이 자주 받으면 받을수록 늘어난다.

예를 들어 현금서비스 400만원을 '단 하루'

썼을 경우 이자는 연 20%의 1/365인 2,190월이지만 취급수수료는 20,000원(=400만원×0.5%)이나 되어 원금과 22,190원을 내야 한다. 만약 한 달 후의 결제일에 상환한다면 이자 65,754원에 2만원(취급수수료)을 더한 85,754원이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매월 결제하기 어려울 때 신용카드회사에서 많이 권유하는 방법이 결제금액의 일부만 납부하는 '리볼빙 서비스'이다. 당장의 지출을 줄이고 결제대금을 연체한 결과 신용이 떨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마냥 고마워할 일을 아니다. 왜냐하면 리볼빙 서비스도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리볼빙 서비스는 결제시점을 늦춰주는 만큼 고객에게 대출해주는 것이어서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은 현금서비스 수수료와 맞먹을 정도로 높다. 신용카드회사 입장에서는 연체율도 낮추고 고율의 대출이자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반면 고객은 결제기간이 늦춰진 것만 알고 미결제금액이 늘어나는데 따라 이자부담도 함께 커지는 것을 자칫 간과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구매도 이와 유사하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에 무리가 되는 신용카드 이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현금서비스, 리볼빙 서비스, 할부구매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결제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자료참조: 한국은행>

겨울용품, 제품 특성에 맞게 보관해야

겨울의 끝자락 속에 내비치는 봄 햇살 때문인지 겨울 한 철 우리를 따뜻하게 해줬던 겨울용품들이 지저분하고 무겁게 느껴진다. 겨울용품을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마음까지 가벼워져보자.



이불은 이렇게

겨우내 따뜻하게 우리를 덮어 주었던 이불은 세탁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넣어두는 만큼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오리털이나 거위털 이불은 소재 특성상 1년에 2회 정도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것이 적당하므로 쉽게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중커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관할 때는 털의 손상의 막기 위해 압축 팩은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상자나 부직포 이불 팩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양모이불도 세탁을 자주하며 양모에 함유된 지방이 변질되기 때문에 수시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리는 것이 좋다. 극세사 이불은 손빨래나 드라이클리닝 할 필요 없이 세탁기로 돌려 빨 수 있어 편리하지만, 80℃ 이상의 고온 세탁은 형태가 변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삶거나 섬유유연제를 사용하면 부드러운 원섬유의 재질이 손상되거나 보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이불을 넣을 때는 습기가 강한 화학섬유나 모양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 이불을 아래쪽에 두고 방충제, 방습제, 쏏 등을 장롱에 함께 넣어 벌레가 생기는 것을 막고 습도를 조절한다. 장롱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 놓는 것도 습기 제거에 좋다.



의류는 이렇게

모직옷은 겨울옷 소재 중 가장 먼지를 많이 타는 옷이고 드라이클리닝을 자주하면 원단이 상하기 쉬우므로 평소 브러시를 이용해 먼지를 잘 털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코트나 재킷은 옷걸이에 걸어 보관하고, 바지와 치마 역시 옷걸이에 걸어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접어 보관할

때는 바지는 가로로 한번, 치마는 세로로 한 번만 접어 보관한다.

패딩은 볼륨을 얼마나 오랫동안 살리느냐가 관건이므로 세탁 후 말릴 때가 매우 중요하다. 봉이나 손으로 두들겨 주어야 세탁시 뭉친 솜이나 털이 되살아나면서 처음 그대로의 볼륨감이 살아난다. 널 때는 걸어서 널지 말고 평평한 곳에 펴서 말린 후 통풍이 잘 되고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자에 담아 보관하면 좋다. 상자 안에 신문지를 깔고 쏏약도 함께 넣으면 습기를 차단할 수 있다.

니트류는 30℃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데 세탁과 행굼 물은 비슷한 온도를 유지한다. 세탁시 절대 비비거나 손으로 짜선 안 되고 행굼 때도 들어 올리지 말고 살짝 누른 채 물을 버린다. 보관할 때는 옷걸이에 걸기보다는 느슨하게 돌돌 말아 서랍에 넣는 것이 좋다. 캐시미어 같은 고급 니트류의 경우 한 계절에 2번 이상 세탁소에 맡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한다. 평소 집에서 전용샴푸를 이용해 찬물에 살살 손세탁을 하는 것이 좋다.

스키복은 드라이클리닝보다 물세탁이 오히려 안전하다.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풀어 가볍게 손빨래하고 섬유유연제 사용은 삼간다. 그늘에서 말린 후 방수 스프레이를 뿌려 옷걸이에 걸어두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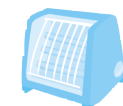
부츠는 이렇게

스웨이드 부츠는 전용 솔로 쓸어내려 털이

보슬보슬 올라오게 한 뒤 전용 스프레이를 뿌린다. 일반 구두약이나 크림을 쓰면 뻣뻣하고 거칠어진다. 얼룩이 심한 경우에는 물 세척을 권한다. 스펀지에 물을 적서 골고루 닦은 뒤 전용 샴푸로 되도록 빨리 세척해준다. 이어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없애고 그늘에 말리면 된다. 색깔이 바랬으면 컬러 스프레이를 뿌린다.

털 부츠는 털과 가죽 부분을 따로 손질해야 한다. 천연 털은 알코올로, 인조 털은 물로 닦은 뒤 드라이로 말린다. 웨스턴 부츠는 일반 부츠 손질 방법과 같은데 단, 징이나 금속 장식에 구두약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츠는 모양이 변하지 않도록 부츠 길이에 맞게 신문지나 도화지 등을 말아 넣어주고 습기가 적고 온도의 변화가 심하지 않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한다.



난방용품은 이렇게.....

난방용품 역시 각 제품 특성에 따라 관리해 주면 오래 사용할 수 있다.

팬히터는 외면의 먼지를 제거하고 뒷면의 필터를 청소해야 한다. 석유 팬히터는 먼저 탱크 속의 연료를 완전히 빼내야 하고 가습조가 부착된 기종은 물통 속의 물도 완전히 제거한 후 건조하고 먼지가 없는 장소에 보관한다.

전기장판을 닦을 때는 물수건에 비누칠을 한 다음 부드럽게 닦아준다. 그늘에 말린 후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데 이때 접거나 장판 위에 무거운 것을 올려놓는 것은 피하도록 한다. ■

보약이 되는 한방차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하려는 환절기라 그런지 일교차가 심하다. 쉽게 피로해지는 요즘, 영양이 듬뿍 들어있는 차 한 잔의 여유가 필요할 때이다.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한방차로 기운을 되찾아보자.

◆ 위장 기능 및 피부미용에 좋은 감잎차

우리나라에서도 폭 넓게 재배되고 있는 감은 옛날부터 건강에 좋은 과일이라고 알려져 왔다. <동의보감>에서는 ‘홍시는 맛이 달고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하고 갈증을 없애며 소화기능을 좋게 하고 숙취를 풀어 준다.

꽃감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보하며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하고 비위장 소화기능을 촉진한다. 이 밖에 얼굴의 기미를 없애고 목소리를 맑게 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감은 위장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장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설사나 배탈이 났을 때 감 한 개에 우유 한 컵을 부은 뒤 꿀을 한 숟가락 넣고 감이 흐물거릴 때까지 달인 다음 마시면 잘 낫는다.

특히 5~6월 경에 수확한 어린잎에 비타민과

칼슘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 태아의 골격형성이 필요한 임산부와 어린이는 음식에 넣어 먹어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감잎차는 녹차와는 달리 약산성이므로 많이 마셔도 장을 상하게 하거나 불면증에 걸리는 염려가 없고,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려는 사람에게, 특히 여성의 피부미용에 효과가 있으며 이노 성분이 있어 몸에 부기를 빼주는 기능이 있어 냉장고에 넣고 음료수처럼 마셔도 좋다. 그러나 변비가 심한 사람은 감잎차 이용을 삼가는 것이 좋다.

◆ 두통을 말끔히 가라앉히는 국화차

한방에서는 국화를 주로 두통약으로 쓰고 있는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거나 눈이 침침하며 미열이 있을 때 감국꽃을 말려서 달여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 학생이나 신경을 많이 쓰는 직장인, 눈을 혹사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권할 만하다. 크고 싱싱한 국화꽃잎을 따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 물기를 빼고 팔팔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숨이 죽을 정도로 데쳐 낸다. 이것을 소쿠리에 겹쳐지지 않도록 펼쳐 그늘에서 말려 두었다가 그때그때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마시면 된다. 그런데 한꺼번에 꽃잎을 너무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나고, 4g가량이 알맞다. 말린 국화를 베개 속에 넣고 자면 머리가 맑아질 뿐만 아니라 기억력을 회복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 <동의보감>에는 국화 가운데서도 흰 국화를 넣어 베면 눈이 밝아지고 어지럼증이 없어진다고 한다.

◆ 노화방지 및 동맥경화증 치료하는 두충차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에서도 많이 재배되고 있는 약재인 들중나무, 즉 두충나무의 고무질 껍질을 두충이라 한다. 두충을 먹으면 허리와 무릎의 통증이 낮고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며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방울방울 떨어질 때, 식은땀을 흘리거나 요통이 있을 때, 습관성 유산이나 산후 후유증이 심해 고생을 할 때도 두충을 쓰면 효과가 있다. 요통에는 두충 60g을 끓여 마시거나 두충 600g에 술 3ℓ를 부어 열흘 동안 두었다가 마신다. 또 두충나무의 껍질뿐 아니라 잎도 정력을 좋게 하고 기운을 돋우는 작용이 있는데 잎을 하루 20g 가량 끓여 두

고 차처럼 마시면 된다.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는 두충나무의 잎이 더 좋은 약이 된다.

효능은 두충껍질과 비슷하지만 약성이 두충나무의 껍질보다 약하여 우려 마시기에 적당하기 때문이다.

◆ 원기 회복에 효과 만점인 구기자차

구기자는 잎사귀와 열매, 뿌리껍질을 모두 차로 달여 마실 수 있다. 구기자의 생잎을 하루에 20~30장씩 먹으면 위장병과 저혈압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생잎을 그대로 먹기가 어려울 때는 차로 달여 마시면 되는데, 구기자잎을 찢어서 햇볕에 잘 말린 다음 향기가 날 때까지 약한 불에서 충분히 볶아서 밀봉 용기에 담아 보관해 두고 그때그때 끓여 마시면 된다.

구기자 나무의 빨간 열매를 보통 구기자라고 하고 뿌리껍질은 지골피라고 한다. 당뇨병이 있거나 기침, 가래가 끊이지 않을 때 지골피를 4~8g 가량 달여 마시면 효과가 있다. 구기자는 예로부터 그 약효를 인정받아 한방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 무엇보다 허약한 사람, 즉 영양실조증, 노쇠, 병후 허약, 만성 질환으로 쇠약해진 사람에게 그만이며, 비뇨생식기나 내분비기능이 허약해서 생기는 신허(腎虛)에 좋다. 이 밖에도 구기자는 눈병에 좋다. 노인성 백내장 초기로 눈이 아찔하고 눈앞에 무엇인가 어른거리며 날이 갈수록 시력이 떨어질 때 효과가 있다. 구기자는 부작용이 거의 없어 복용량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자료출처: 사이버한의약체험관)

색다른 별미 '김치 퓨전 요리'

이맘때가 되면 겨우내 맛나게 먹었던 김장김치에 물릴 만도 하다.
김장김치와 잘 어우러지는 서양요리로 만든 '퓨전 요리'로 가족의 입맛을 사로잡아 보자.

돼지고기김치커틀릿

재료> 돼지
고기 등심
200g,
배추김
치 100g,
감자 1개, 파
메산치즈 2작은술,
청양고추 1/2개, 빵가루·밀가루
1/2컵씩, 달걀 2개, 소금·후춧가루·파슬리 가루 약간씩,
소스(양파 1/2개, 홍고추 1개, 토마토케첩 3큰술, 우스터스
스·황설탕 1큰술씩, 청양고추 2개, 녹말물 1작은술, 소
금·후춧가루 약간씩)

〈만드는 방법〉

- ① 돼지고기는 0.5cm 두께로 포를 떠서 칼집을 넣은 뒤 소금·후춧가루로 간하고, 배추김치는 소를 툰다.
- ② 감자는 삶아 뜨거울 때 으갠 다음 파메산치즈, 소금, 후춧가루, 파슬리가루를 넣어 버무린다.

③ 돼지고기 위에 김치를 얹고, 버무린 감자를 넣어 돌돌 만든다.

④ ③에 밀가루, 달걀, 빵가루 순으로 튀김옷을 입혀 갈색이 나도록 튀긴 후 분량의 재료로 만든 소스를 곁들인다.

김치잡채크레이프

재료> 김치 100g, 당면 30g, 호박 30g, 팽이버섯 30g, 표고 2개, 우유 1큰술, 굴소스 1작은술, 버터 1큰술, 크레이프 반죽(밀가루 80g, 올무가루 10g, 달걀 2개, 설탕 1큰술, 우유 1컵, 녹인버터 1큰술)

〈만드는 방법〉

- ① 달걀과 우유를 잘 섞어 밀가루와 올무가루, 녹인버터를 넣고 반



죽해 실온에서 30분 정도 둔다.

②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키친타월로 살짝 닦아낸다. ①의 반죽을 얇게 부쳐내고 식힌다.

③ 표고버섯은 미지근한 물에 20분 불리고 물기를 꼭 짰 후 채 썬다.

④ 김치는 물에 흔들어 씻어 물기를 짜고 채 썰고, 호박도 채 썰어 놓는다.

⑤ 당면은 미지근한 물에 불려 짧게 자른다.

⑥ 달궈진 프라이팬에 버터를 두르고 김치, 표고버섯, 호박, 당면을 볶다가 굴 소스, 설탕, 우유, 팽이버섯을 넣고 볶는다.

⑦ 얇게 부쳐놓은 그레이프에 볶은 야채를 넣고 돌돌 말아 접시에 내어 놓는다.

닭가슴살김치롤

재료> 닭가
슴살·배추김
치 300g씩,
양파 1/2개,
당근 1/4개,
깻잎 10장,
튀김가루 1/2
컵, 식용유·튀김기름 적당량씩, 소금·후춧가루 약간씩,
발사믹소스(발사믹식초 3큰술, 꿀 1큰술, 버터 1작은술, 후
춧가루 약간)

〈만드는 방법〉

- ① 닭가슴살은 얇게 저며 소금, 후춧가루로 간한다.
- ② 배추김치는 소를 툰 다음 줄기만 다진다.
- ③ 양파, 당근은 다진 후 다진 김치줄기와 함께 기름 두른 달군 팬에서 수분이 없도록 볶아준다.



④ 배추김치잎을 깔고 닭가슴살, 깻잎 순으로 얹은 후 볶은 재료를 넣어 말아준다.

⑤ 김치말이에 튀김가루를 무쳐 튀겨서 한입 크기로 썰고 발사믹소스를 만들어 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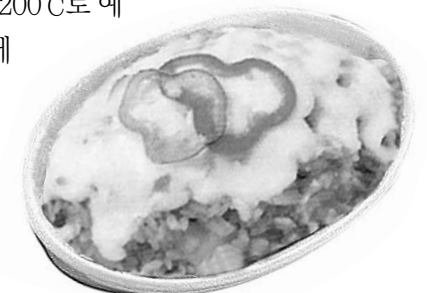
김치도리아

재료> 배추김치 20g, 베이컨 4조각, 밥 3공기, 다진 마늘 1작은술, 실파 4뿌리, 올리브오일 4큰술, 화이트소스(밀가루 6큰술, 버터 4큰술, 우유 2컵, 소금 1큰술, 후춧가루, 모짜렐라치즈 200g)

〈만드는 방법〉

- ① 김치는 소를 털어 굵게 다져 물기를 짠다.
- ② 베이컨과 실파는 잘게 썰고 마늘은 곱게 다진다.
- ③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 실파, 베이컨, 김치를 볶다가 밥을 넣고 볶는다.
- ④ 프라이팬에 버터와 밀가루를 넣고 색이 나지 않게 하얗게 볶다가 우유를 넣고 크림상태로 만든다.
- ⑤ 걸쭉해진 화이트소스에 소금, 후춧가루를 넣고 간을 맞춘다.
- ⑥ 모짜렐라 치즈는 곱게 다져 놓는다.
- ⑦ 볶은 밥을 내열용기에 담고 화이트소스를 밥에 덮은 후 모짜렐라 치즈를 위에 얹는다.
- ⑧ 180~200℃로 예

열한 오븐에
15~20분
정도 구
워낸
다.



생활 속 재활용 아이디어

변질된 음식물이나 버려야 할 생활용품을 보면 문득 어디 다른 곳에 쓸 곳에 없나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 굳은 커피



굳어버려 못 먹게된 커피는 따뜻한 물에 녹여 세제 대신 쓰면 좋는데, 특히 기름기 묻은 그릇을 닦을때 좋다.

◆ 조각비누



작게 조각난 비누를 용기에 모아 물을 약간 뿌리고 전자 레인지에 1분정도 데우면 액체 비누가 만들어진다.

◆ 상한우유



오래된 우유에서 발생하는 알칼리 성분이 세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마루나 가구들을 닦는 청소용제로 활용하면 효과가 좋다.

◆ 올 나간 스타킹



싱크대의 개수대나 욕실의 배수관에 걸쳐 찌꺼기를 거르는 거름망으로 사용하고 처리할 때도 스타킹만 떼어내 버리면 되므로 편리하다.

◆ 해 지난 전화번호부, 다 쓰고 난 호일심



작년 전화번호부를 갖고 있다면 한 장씩 뜯어 종이타월 대신 기름 때를 닦는데 쓰면 좋다. 또 다 쓰고난 호일심의

경우 길게 틈을 내고 철사 옷걸이에 끼우면 걸어 놓은 옷에 자국이 남지 않아 좋다.

◆ 김빠진 맥주와 콜라



마시고 남은 음료들은 의외로 활용도가 많다. 맥주는 생선 비린내 및 돼지고기 누린내 제거에 효과적이다. 생선은 10분 정도, 돼지고기는 1시간 전 담가두었다가 요리하면 특유의 냄새를 없앨 수 있다. 마른 헝겊에 맥주를 묻혀 방문 손잡이를 닦으면 깨끗해진다. 콜라는 욕조, 세면대, 변기 안쪽의 묵은 때 제거에 좋다. 깨끗이 닦이고 냄새도 없어진다.

◆ 달걀껍질



보릿차 찌꺼기가 남은 속이 깊은 병이나 아이들의 우유 병을 닦을때 달걀 껍질을 잘게 부수어 넣고 미지근한 물을 붓고 흔들면 깨끗이 닦인다.

◆ 굴껍질



잘 말린 굴껍질을 면 속옷을 삶을 때 몇 조각 함께 넣으면 깨끗하게 삶을 수 있고, 섬유 유연제를 쓰기 않아도 은은한 향이 배인다.

〈자료출처: 친환경상품진흥원〉

선조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곳

막바지 겨울바람 속에서 간간히 코끝을 스치는 봄 향기 때문인지 바깥나들이를 하고 싶어진다. 가족과 함께 선조의 지혜로운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 겨우내 웅크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보는 것은 어떨까.

임금님도 반한 장단콩 두부 먹고 이색박물관으로

경기 파주시



계절의 발걸음은 참으로 빨라 겨울을 등지고 봄을 기다린다. 이른 봄바람을 따라 경기도 파주시 장단콩마을

(통일촌)에서 장 담그기 체험과 임진강변의 문화 유적지 나들이를 나선다.

통일대교 너머에 있는 장단콩마을은 북적이는 사람 대신에 야생동물과 자연이 함께 숨 쉬고 있는 청정지역이다. 장단콩마을에서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가능하다. 700여개의 멋진 장독대의 모습도 볼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손가락으로 톱 찍어 장맛도 볼 수 있다. 맷돌 체험과 전통 두부 만드는 법도 배울 수 있다. 이곳의 장단콩두부로 만든 된장찌개, 콩비지는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장단콩마을 주변은 둘러볼 만한 곳도 많다.

임진각 관광지와 황희정승 유적지, 반구정과 화석정은 자유로 바로 근처에 있어 오가는 길에 가볍게 구경하는 것도 좋다. 또한 두루뎃박물관과 헤이리마을의 신기하고 다양한 건축물, 경기영어 마을에 있는 별난 물건박물관 등 이색 박물관도 방문하면 알찬 나들이가 완성된다.

고도(古都)에서 백제 문화 구경하고 민속박물관으로

충남 공주시



공주시는 한성시대를 접은 백제가 새롭게 선택한 수도이다. 웅진도읍기인 475년부터 538년

은 새롭게 백제의 문화를 꽃피우던 시기로 수많은 문화유산을 남겼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수도를 방비하던 공산성과 웅진백제시대의 화려한 문화와 함께 잠든 임금과 왕족들의 무덤, 송산리고분군이다. 그렇다고 공주에 백제시대의 문화유산만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고려청자에서 백자로 넘어오기 전, 활발한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임진왜란과 함께 그 맥이 끊어졌던 자연을 닮은 도자문화의 꽃, '철화분청사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계룡산도예촌, 민중의 아픔이 해학적으로 녹아있는 다양한 민속극을 만날 수 있는 공주민속박물관, 공룡과 맘모스는 물론 그 시대에 살던 선사시대 인류를 공부할 수 있는 계룡산자연사박물관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다. 때문에 공주를 돌아보는 데는 하루 이틀의 시간도 모자라니 넉넉한 시간을 갖고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

이달의 읽을 만한 책

D에게 보내는 편지

〈앙드레 고르 著, 임희근 譯/ 학교재〉



2007년 9월의 어느 날 프랑스 보농이라는 시골마을에서 83세의 앙드레 고르와 82세의 아내 도린이 침상에 나란히 누워있는 채로 발견된다. 따로따로 죽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 두 사람이 택한 죽음의 방식이다. 이들의 동반자살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침대 옆에는 자신

들을 화장시켜 20여 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가꾸며 살았던 마당에 묻어달라는 편지가 놓여 있었다. 사르트르로 하여금 “세계에서 가장 날카로운 지성”이라는 평을 들었던 앙드레 고르는 일생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심층 분석해 온 철학자이며 언론인으로 『배신자』, 『역사의 도덕』 같은 저서들을 남겼다. 앙드레 고르가 처음 만나 죽을 때까지 사랑한 아내 도린이 척추 수술로 인한 깊은 병에 걸리자 고르는 모든 사회 활동을 접고 아내와 투병생활을 함께 한다.

『D에게 보낸 편지』는 죽기 일년 전 고르가 아내를 위한 글을 쓴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쓰기 시작한 〈죽음으로 봉인한 사랑의 편지〉이다. 그는 이 편지를 보이지 않는 대중을 향해서가 오로지 아내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편지 속에 담긴 두 사람의 인생을 읽고 있으면 평생 사랑과 신뢰와 감사 그리고 서로를 위한 헌신으로 생을 다했던 그들로 인해 읽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깊은 위로를 받게 된다.

〈추천자 : 신경숙(작가)〉

친절한 조선사

〈최형국/미루나무〉



우리 사회가 역사를 무거운 존재로 인식해온 것은 나라를 빼앗겼던 쓰라린 경험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일제는 우리 역사를 비하해 저항정신을 뿌리뽑는 것을 식민통치의 주요한 수단으로 삼았기에 그에 저항하는 역사는 엄숙할 수밖에 없었다. 역사는 근엄하고 무거운 주

제이기도 하지만 가벼운 이야기거리이기도 한데, 그간 이야기거리로서의 역사는 경원시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 시대 사람들의 삶의 총체적 모습을 역사라고 할 때 그 전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모습은 엄숙하기보다는 일상적이기 십상인데, 『친절한 조선사』는 각 부분을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에 포커스를 맞춘 역사책이다. 위로는 임금의 취미생활부터 아래로는 소도둑으로 몰린 이웃을 도와주려다 쫓겨나는 여류시인의 이야기까지, 안으로는 몰래 숨어서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부터 밖으로는 오키나와와 필리핀까지 표류했던 흑산도의 홍어장수이야기까지, 또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던 조폭과 임진왜란에 참가했던 흑인 용병 이야기까지 여러 사실들이 드라마처럼 전개된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런 실개천들이 모여서 대하(大河)가 되고, 대하가 모여서 역사라는 큰 바다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재미있게 들여다보다 보면 어느덧 역사가 이런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졌음을 알게 되는 ‘친절한 역사서’이다.

〈추천자 : 이덕일(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서울특별시지부

불우이웃돕기

광진구지회(회장 이옥순) 회원 4명은 지난 2월 1일 부모 없는 아이 13명이 함께 살고 있는 한얼이네 집을 방문해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생필품과 생활비를 전달하며 위로 격려했다.



부산광역시지부

신년회 및 월례회

시지부(회장 김기묘)는 1월 12일 본회 강의실에서 임원 및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신년회와 월례회를 갖

고 '08년도 사업계획 및 지회 회원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원산지 표시 캠페인

1월 24일 회원 10명이 남향시장과 봉래시장 앞에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며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전개했다.

‘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소비자는 원산지 확인’을 강조하는 홍보물을 배포하며 수입 농산물의 부정 유



통 방지를 비롯해 우리 농산물 애용을 홍보했다.

설 성수품 물가조사

1월 7일~29일까지 설 성수품 가격 조사를 위해 각 구 회원들이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물가조사를 실시했다.

대구광역시지부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시지부(회장 손기순)에서는 1월 22일 회장과 회원 2명이 중구청을 방문해 지난 연말 바자회 개최로 얻은 수익금을 어려운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돕기 성금으로 전달했고, 23일에는 대구교육청 교육감실을 찾아가 난치병 어린이 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

설을 앞두고 수입 농수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1월 25일 대구서문시장에서 회원 30명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함께 설 성수품 관련 부정유통 방지 및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인천광역시지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캠페인

시지부(회장 한혜자)는 지난 1월 25일 회원 2명이 석바위시장에서



수입농산물의 불법 유통 방지 및 물가안정을 위한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전개했다.

계양구지회(회장 고영숙)는 1월 10일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20명이 석바위시장과 용현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화, 소비자들에게는 원산지 표시 확인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1월 25일 남구지회(회장 김경옥)와 부평구지회(회장 이순애) 회원들은 용현시장에서, 연수구지회(회장 고영숙), 남동구지회(회장 김연숙) 회원들은 석바위시장에서 각각 농산물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애용을 유도했다.

봉사활동

서구지회(회장 이민자)는 지난 1월 14일 회원 9명이 석남동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했고 도시락을 준비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남동구지회(회장 김연숙)는 회원 15명이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길 병

원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1월 18일에는 회원 45명이 태안기름 유출 현장을 찾아가 기름 제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광주광역시지부

설 성수품 가격조사

시지부(회장 박영희) 회원 15명은 지난 1월 7일, 21~22일, 29일~30일 3차에 걸쳐 광주 시내 백화점, 할인마트, 재래시장 등 31곳을 대상으로 설 성수품 관련 가격조사를 실시해 성수품 물가 동향을 통해 물가 안정 및 민생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원산지표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시지부 회원 15명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월 29일 말바우시장에서,



30일 무등시장에서 각각 농산물 원산지표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며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애용해 줄 것을 호소했다.

대전광역시지부

제20기 전문간병인 교육

시지부(회장 송병희)에서는 봉사활동과 함께 여성의 건전한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간병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21일~30일 14일간 주부교실 2층 강당과 대전기독병원에서 간병활동에 뜻이 있는 여성 31명을 대상으로 '제20기 전문간병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각 대학병원 간호과장 이상의 강사진을 초빙해 환자간호기초를 비롯해 한방간호, 치매환자간호, 임종간호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울산광역시지부

설 성수품 물가조사

시지부(회장 박보봉)에서는 2월 명절인 설을 맞이해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모니터 10명이 지난 1월 7일~30일 3차에 걸쳐 설 성수품 가격조사를 실시했다.

설 성수품에 대한 물가 동향을 조사함으로써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하고 합리적인 제수용품 구매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태안반도 봉사활동

시지부 회원 45명이 지난 1월 15일 태안 기름유출 사고 현장인 구례포 해수욕장을 방문해 기름 제거 활



동 및 사랑의 떡국 나누어주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실버 노래 교실’ 및 ‘그린 여성 자전거 교실’

시지부에서는 1월 매주 월요일 주부교실 교육장에서 노년에 생기는 고독감과 소외감을 덜어 주고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 40명을 대상으로 ‘실버 노래 교실’을 운영해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자전거 이용 인구가 점차 늘고 있어 매주 월요일~금요일 동천 체육센터에서 주부 20명을 대상으로 ‘그린 여성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을 통해 건강 증진 및 대기 오염 완화, 자가용 이용 억제 등 에너지 절약과 함께 건강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지부

지도자 신년 인사회

도지부(회장 박명자)는 지난 1월 11일 신혼 웨딩홀에서 자문위원, 운영위원 및 31개 시·군 지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도자 신년 인사회를 가졌다. '07년도 활동보고와 함께 '08년도 사업 방안 등을 논의했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 등을 통해 회원 단합 및 도지부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물가 안정 캠페인

설을 앞두고 생수품 물가 상승이



우렘됨에 따라 1월 29일 평택시지회 회원과 도지부 회원 30여명이 평택역 부근에서 물가 안정 캠페인을 전개했다.

월례회의 및 봉사활동

평택시지회(회장 박영미)는 지난 1월 14일 임원 및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손맛돌음식점에서 월례회를 실시해 '07년도 결산보고 및 '08년도 사업계획 방안을 논의했다.

1월 21일 회원 20명이 남부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중식 제공 도우미 활동 및 말벗이 되어 드리며 쓸쓸한 노년을 위로했다.



재활용품 이용 및 봉사활동

오산시지회(회장 김형례)는 1월 10일 주부교실 사무실에서 임원 및 회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의를 개최해 '07년도 결산보고와

함께 '08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1월 17일 사무실에서 회원 20명이 모여 폐식용유를 이용해 비누를 만들어 재활용품 이용하기에 앞장섰고, 24일에는 회원 18명이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현장을 방문해 기름띠 제거 작업에 동참했다.



강원도지부

봉사활동

태백시지회(회장 오영희) 회원 8명은 지난 1월 30일 치매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태백요양원을 방문해 목욕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평창군지회(회장 함영예) 회원 8명도 1월 22일 눈동이 가족봉사단에 참여해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충청북도지부

봉사활동

청주시지회(회장 권지순)는 1월 11일 관내 복지회관에서 회원 11명이 불우한 이웃과 독거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제천시지회(회장 장태봉)는 1월 7일 회원 10명이 하소리복지관을 찾아가 어려운 이웃과 장애우들에게 중식을 제공했고, 25일에는 회원 10명이 관내 위치한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중식제공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안전점검 및 우리 농산물 애용 캠페인

음성군지회(회장 김영옥)는 지난 1월 18일 설 연휴 대비 안전점검을 위해 회원 2명이 석유품질관리원과 함께 관내 LPG 충전소 10곳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25일에는 회원 4명이 농산물 품질관리원 중앙회 직원들과 함께 군내에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며 우리 농

산물 애용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유도했다.

EM(유용미생물) 친환경 생활 교육

단양군지회(회장 김길성)는 1월 5일 농촌지도소 2층에서 주부 20명을 대상으로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EM(유용미생물) 친환경 생활교육을 실시했다.

우리 주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손쉬운 방안으로서 생활하수의 주 오염원인 싼뜨물을 유용한 미생물들(EM)을 이용해 발효시킨 발효액으로 친환경 주방세제를 만드는 방법 등을 소개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실천방법을 알려주었다.

불우이웃돕기 톨게이트 공동모금

영동군지회(회장 김숙자)는 1월 13일 회원 2명이 영동 진달래 소방대원들과 함께 영동 용산 톨게이트에서 새해맞이 '톨게이트 불우이웃돕기 공동모금' 행사에 참여했다.

총회 및 불우이웃돕기

옥천군지회(회장 유재숙)는 1월 9

일 여성회관에서 임원 및 회원 32명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갖고 '07년도 결산 및 '08년도 사업계획을 정했고, 옥천군 여성회관 선정 알뜰매장 판매 우수단체로 선정돼 받은 시상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충청남도지부

'효과적인 인간관계' 교육

도지부(회장 조춘자)는 지난 1월 17일 공주우체국 회의실에서 16개 시·군 지회장 및 운영위원, 실무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례회 겸 월례회를 개최한 후 '효과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밀레리엄 연구소 김미화 소장은 주부교실을 통한 회원 간 만남을 소중히 생각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삶의 지혜 등을 소개했다.

봉사활동 및 불우이웃돕기

공주시지회(회장 조춘자)는 1월 22일 회원 20명이 죽당리에 위치한 노인시설인 금강원을 찾아가 떡과

과일을 대접하며 쓸쓸한 말년을 위로하며 말벗이 되어 드렸다.

1월 25일에는 회원 50명이 관내 거주하는 부자가정 5가정을 10명씩 한조가 되어 각각 방문해 가래떡과 밀반찬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논산시지회(회장 홍순영)는 1월 25일 회원 30명이 은진면에 위치한 장애우 시설인 애육원을 방문해 청소 및 목욕 봉사를 실시했다.

전라북도지부

정기총회 및 시·군 지회연수회

도지부(회장 최원자)에서는 지난 1월 2일 하나대투증권 3층 대강당에서 운영위원 및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가졌고, 16일 같은 장소에서 시·군지회장 및 총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군 지회연수회'는 '07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08년도 사업계획을 비롯해 각 시·군 지회장들의 협조 요청 등 주부교실 발전을 위한 자질 함양과 함께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원산지표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지난 1월 25일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10명이 전주시 코아백화점 앞에서 중앙시장일대까지 원산지표시 활성화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며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생활화가 우리 농산물 보호와 함께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의 기본임을 강조했다.

성폭력예방 캠페인

정읍시지회(회장 이정임)에서는 지난 1월 3일 회원 25명이 수성동 시청광장 주변 일대에서 '성폭력예



방 캠페인'을 전개하며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성숙한 시민이 되어줄 것을 호소했다.

불우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익산시지회(회장 김채숙)는 1월 21일 회원 5명이 취가 한정식에서 모여 관내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고추장을 담갔고, 숙성 후 전달하기로 했다.

김제시지회(회장 김보배) 회원 5명은 1월 29일 소외된 노인들이 살고 있는 평강의 집을 방문해 목욕 및 청소봉사활동을 전개하며 말벗을 되어 노년의 쓸쓸함을 위로했다.

완주군지회(회장 최영숙) 회원 23명은 지난 1월 8일 서해안 태안읍 서해안 기름유출 현장을 찾아가 기름 제거 활동에 참여했다.

부안군지회(회장 김용순)는 1월 25일 부안초등학교와 동초등학교 졸업식장을 각각 찾아가 불우한 환경에서도 학업에 매진한 모범생 2명에게 영한사전을 구입해 주었다.

장수군지회(회장 양순옥)에서는 지난 1월 2일 관내 거주하고 있는 불우이웃에게 연탄 200장을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의 정을 전했다.

전라남도지부

신년 인사회 및 간담회

도지부(회장 이승자)는 지난 1월 17일 도지부 사무실에서 임원 37명이 모여 신년 인사회 및 간담회를 갖고 '07년도 사업보고와 '08년도 사업계획에 관해 논의한 후 친목 도모의 시간을 통해 주부교실 발전을 기원했다.

고흥군지회(회장 박민자)도 지난 1월 4일~5일 임원 및 회원 30명이 충남대 관리사업소에서 워크숍을 개최해 신년 사업보고 및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설 성수품 물가조사

나주시지회(회장 황길자) 회원 20명은 1월 7일~8일, 21일~22일, 29일~30일 3차례 걸쳐 대형유통업체 및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농수산물을 비롯한 성수용품 등의 가격조사를 실시해 물가동향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봉사활동

여수시지회(회장 이안자) 회원 20

명이 1월 30일 동여수복지관을 방문해 독거노인 및 고령자들에게 무료급식 도우미 및 주변정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강진군지회(회장 김종심) 회원 30명은 지난 1월 21일~22일 강진 종합체육관 축구전용 경기장에서 개최된 축구경기에 무료 음료 제공 및 행사 진행 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영암군지회(회장 노영미) 회원 30명은 지난 1월 1일 삼호 현대호텔에서 신년을 맞아 영암을 찾는 관광객 1,000여명을 대상으로 떡국 나눠먹기 행사에 참여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담양군지회(회장 김향자) 회원 30명은 지난 1월 11일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영광군 백바위 해수욕장을 방문해 기름찌꺼기 제거 활동을 전개하며 영광어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위로했다.



경상북도지부

설 성수품 물가조사

도지부(회장 이인호)는 지난 1월 7일~8일, 21일~22일, 29일~30일 3차례 걸쳐 모니터로 활동하는 회원 10명이 대형유통업체 및 재래시장 20곳을 대상으로 농수산물을 비롯한 설 성수품목 31개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와 함께 민생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원산지표시 확인을 위한 캠페인

도지부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25일 농산물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 12명이 원평동 중앙시장에서 농축산물 부정유통 근절 및 원산지표시 확인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우리 농축산물 보호 및 애용에 앞장섰다.

불우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구미시지회(회장 한로미)는 지난 1월 2일 구미시청을 방문해 '희망 2008년 사랑의 열매 달아주기' 행사에 성금을 기탁했고, 같은 날 한

로미 회장은 농관원 칠곡·구미출장소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산물 명예감시원 우수활동으로 '경북지원장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다. 또한 1월 3일 회원 8명이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중식제공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했고, 20일~25일까지 회원 30명이 구미시 중앙시장 등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마련을 위해 떡국 판매를 전개했다.

경주시지회(회장 박추자) 회원 15명은 지난 1월 4일 충남 태안군 기름유출사고현장을 방문해 성금 기탁과 함께 기름 제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영천시지회(회장 이길자)는 지난 1월 24일 회원 5명이 영천시청에서 운영했던 '컴퓨터교육' 수료식에 참석해 행사 진행 도우미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주부교실과 자매결연한 이주여성 5명이 수료증을 받게 된 것을 축하해 주었다.

한편, 이길자 회장은 1월 10일 농관원 영천출장소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산물 명예감시원 우수활동으로 '농림부장관상'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경산시지회(회장 우옥순) 회원 7

명은 지난 1월 2일 장애인복지센터인 대동재활원을 방문해 라면, 떡 등 음식을 전달하며 소외된 아픔을 나누며 위로했다.



영주시지회(회장 정순옥) 회원 5명은 1월 17일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하양성당의 '만남의 집'을 방문해 점심식사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했고, 24일에는 회원 10명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거주하는 자미동산 요양원을 방문해 목욕 및 청소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포항시지회(회장 김귀련) 회원 10명은 지난 1월 16일 노인전문요양원인 햇빛마을 요셉의 집을 방문해 다과를 대접하면서 건강운동요법 및 치매예방법을 소개했고, 19일에는 회원 17명이 해도동 '노년의 집'을 방문해 무료급식 배식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매주 월요일마다 회원 5명씩 총 20명이 학산 주공 아

파트 내 장애우 및 독거노인세대 22가구에 점심식사 배달 후 그릇수거 세척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봉화군지회(회장 이유정) 회원 13명이 지난 1월 8일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13분을 위해 목욕 봉사활동을 전개했고, 9일에는 회원 3명이 태안군 기름유출사고현장을 방문해 준비해간 호박시루떡 간식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했다.

성주군지회(회장 김미경)는 1월 25일 회원 10명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청소 및 도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군위군지회(회장 이은주)는 1월 10일 군위군청을 방문해 교육발전기금으로 성금을 기탁했고, 18일에는 태안기름유출사고 현장에 필요한 면제품을 모아 태안군청에 보냈다.

영양군지회(회장 박정자) 회원 6명은 1월 28일 삼삼노인회관을 방문해 청소활동을 전개했고, 다과를 대접하며 말벗이 되어 드려 쓸쓸한 노년의 삶을 위로했다.

고령군지회(회장 정숙자) 회원들은 지난 1월 4일 관내 거주하는 불우이웃 5세대에게 쌀을 각각 전달했고, 10일과 24일 회원 6명이 월막

요양원을 방문해 목욕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다과 시간을 가지며 담소를 나누었다.

경상남도지부

설 성수품 물가조사

도지부(회장 이인숙)는 1월 7일~8일, 21일~22일, 29일~30일 3차에 걸쳐 대형유통업 및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성수품을 비롯한 농수축산물 및 공산품 가격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성수품 구매 가격 제공과 함께 민생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원산지표시 확인을 위한 캠페인

1월 25일 회원 10명이 마산 어시장에서 원산지 확인 캠페인을 전개하며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에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부모가정 문화탐방

합천군지회(회장 조미란)는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에게 여행의 기회와 함께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고자 지난

1월 8일 한부모 가족 65명과 회원 11명 등 80여명이 함께 부산아쿠아리움에서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신년회 및 정기총회

도지부(회장 김영희)에서는 지난

1월 7일 뉴월드뷔페 회의실에서 임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07년도 결산보고와 함께 08년도 예산안 확정 등 주부교실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캠페인

지난 1월 25일 동무수산물재래시장 일대에서 농산물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하는 회원 15명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직원과 함께 원산지 표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농산물의 불법 유통 근절에 앞장섰다.

중앙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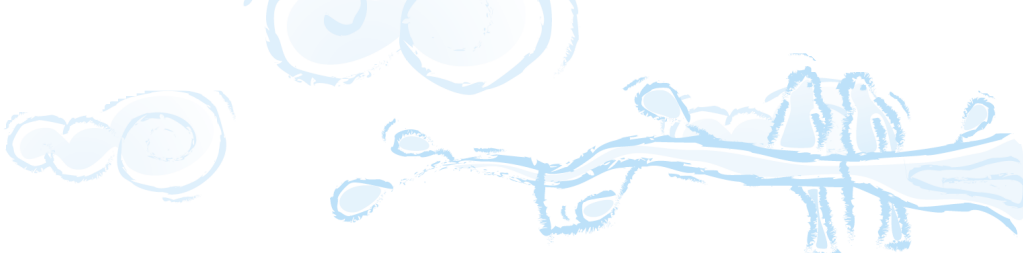
◆ '08년도 물 사업 관련 특강



지난 1월 25일 롯데호텔 라센느에서 중앙회 임원 50여명과 16개 시·도 지부 회장단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물 사업 관련 특강을 실시했다. 수자원공사의 곽결호 사장이 강사로 초빙돼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확보를 위한 시민운동 방향'이란 주제로 물 사랑 실천을 강조했다.

◆ 16개 시·도 지부장 회의

1월 25일~26일 롯데호텔 라센느에서 '16개 시·도 지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추진할 주력 사업 및 조직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부교실게시판

■ '08년도 등산반 '시산제' 개최

올해로 21주년을 맞은 등산반이 회원들의 안녕과 주부교실 발전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일 시 : 2008년 3월 26일(수) 11:00
- 장 소 : 수락산(덕성여대 생활관 뒤편)

■ 제70기 주부대학 수료식 및 신입생 모집

주부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주부대학의 제70기 수강생들이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수료식을 가짐에 따라 제71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제70기 수료식
 - 일 시 : 2008년 3월 28일(금) 15:00시
 - 장 소 : 중구 구민회관 1층 강당
- 제71기 신입생 모집
 - 개 강 일 : 2008년 4월 2일(수)
 - 교육기간 : 4월 2일 ~ 9월 26일(6개월)
 - 접수기간 : 2월 15일 ~ 3월 31일
(선착순 마감)
- 문의처 : (02)2265-0637, 3627~8

■ 소비생활에서 입은 피해 상담 및 구제

소비자들의 권익향상과 피해구제를 위해 전국 48개 지역에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민원상담 피해구제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을 전화, 인터넷, 방문 등으로 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 화 : (02)2273-2485 · 6300, 2266-5870
- FAX : (02)2279-9341
- E-mail : nchc01@chol.com
- 홈페이지 : www.nchc.or.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 광진여성인력개발센터 수강생 모집

본회가 여성적합직종개발 및 훈련으로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된 직업 적성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광진구 소재)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매달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 www.womanpro.org
- 문 의 : (02)3409-1948~9